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李 敏 弘 \*

## 摘要

八關會是高麗時代五百餘年間舉行的朝鮮民族節慶活動。它並不止是朝鮮民族的慶典，而且也代表當時的宗教、當時的民族樂舞。八關會並非是起源於高麗時代的一種儀式或樂舞，它本身即具有相當悠久的歷史和傳統。它的來源可能有四：一是夫餘的迎鼓，二是高句麗的東盟，三是濶的儻天，四是新羅統合三韓（馬韓、辰韓、弁韓）的宗教和樂舞成『四仙樂部』與其他樂舞。

八關會是統一三韓的高麗太祖王建所重視的國家儀典。它受到當時流行『功成制樂』的禮樂思想之影響。太祖是位有非常自主性的帝王，所以他非常強調高麗應該具備自己獨特的民族禮樂。因此，隨著這樣的趨勢，施行了所謂的八關會。但是隨著高麗的衰微，八關會也逐漸退出了歷史的舞臺。但是，『八關會』的理念、儀式和樂舞到現在還沒完全消失，仍然溶入在韓國的社會、文化裏面活躍地存留著。

本文的綱目計分：一，序言；二，八關會和禮樂思想；三，八關會和民族禮樂；四，八關會的傳承和變貌；五，朝鮮朝創建和八關會。茲論述於後。

## 1. 序 言

汎東洋圈의 중요한 국가의 하나인 韓國은, 西洋의 통치기술이 이입되기 전에, 국가를 다스리고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이념은 民族禮樂과 中國禮樂이 융합된『禮樂思想』이었다。19세기 이후 한국을 다스리는 서양의 統治技術은 그 곳에서釀成된 그들의

\*作者爲本校東語系交換教授

『禮樂思想』이다. 서양의 禮樂思想은 근대적이고, 범동양권의 전통적인 禮樂思想은 진부하다는 발상은 西歐를 향한 以小事大의 사대주의적 사고이다. 소위 西洋의 禮樂思想을 統治理念이라 하지 않고 統治技術이라 칭한 것은 까닭이 있다. 『이념』은 국가경영의 경우 백성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인데 반해, 『기술』은 민중의 마음보다는 육체적인 제어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고도로 과학적인(?) 서양의 정치제도가 어째서 기술일 때 름이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다. 『禮』는 계급을 전제로 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인간은 계급을 벗어날 수 없다. 계급을 없앤다는 것은 환상이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계급을 창출해놓고, 계급을 없앤 것으로 착각했을 때 름이다. 단지 계급간의 충돌을 좁히는 것은 가능하고, 그 충돌을 좁힌 것을 두고 계급의 소멸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착각이다. 사회의 통치와 질서는 결국 계급을 인정하거나 또는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계급이 없다는 것은 衆口難防을 의미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家族의 경우도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형이나 누나등의 위계적인 권위가 없다면 원만한 가정이 안된다. 동양은 일찍부터 인간의 이같은 숙명적인 구도를 긍정했다. 계급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층 백성이나 민중을 계급을 없앤다는 수단도 같은 깃발을 들고 규합하여 기존의 상부 계급을 타파한 후, 그들 기수는 그들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타도한 기존의 지배층이 갖고 있던 그 직위를 당당하게 획득한다. 백성이나 민중이 이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 신계급주의자들은 上位의 계급적 쾌락을 마음껏 향유한다.

백성이나 민중들이 무계급의 환상적 꿈에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들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馬倒한 과거의 계급적 틀을 재단장하여 백성들에게 그물을 친다. 그것은 다른 색깔로 페인트칠을 했을 뿐이지 알맹이는 면밀히 검토하면 과거부터 존재했던 제도적 장치 그것이다. 소위 전통적인 『禮』이다. 그들이 예를 재등장시킨 이유는, 그것이 수천년 또는 수만 년간 백성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최고의 이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예는 국가통치와 접맥된 체제의 구조와 제도등을 의미하지, 祭儀의 절차나 이른바 예의범절 유는 배제했다. 예는 그 포괄하는 영역이 실로 방대하다. 시대가 진행될수록 예는 그 본질과 멀어져 지엽말단에 치중된 감이 있다. 이미 孔子(西紀前551-前479)도 본질에서 멀리 벗어나 지엽말단에 치중하는 『禮』는 무엇에 쓰며 『樂』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sup>1)</sup> 孔子시대에도 禮樂이 그 본원에서 멀어진 터에, 시대가 내려올수록 근본에서 이탈된 禮樂의 폐단도 증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禮樂에 수반된 『樂舞』가 시대를 뛰어넘어 중시된 이유

1)論語:人而不仁如禮何人而不仁如樂何(八佾). 能以禮讓爲國乎何有不能以禮讓爲國如禮何(里仁). 禮云禮云玉帛云乎哉樂云樂云鍾鼓云乎哉(陽貨).

는, 노래와 춤만큼 사람들을 동원하는 힘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물론이고 먼 미래까지도 대중적인 노래와 춤을 연희하는 판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결집할 것이다.

## 2. 八關會와 禮樂思想

일찍이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주의적 국가치고 樂舞를 이용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 과거의 漢民族이나 蒙古族 契丹族 女真族 日本族 역시 악무를 그들의 제국주의적 판도를 유지하고 다스리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특히 漢民族은 악무의 중요성을 어느 민족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한족의 王朝인 唐·宋·明은 중원의 “禮樂思想”을 바탕으로 동양을 지배하고자 했던 체제였다. 元·清朝가 무력에 치중한 통치체제를 구축코자 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당시의 禮樂思想은 국가의 통치이념이었다. 禮樂의 중요한 부분인 제사와 악무는 국가를 통치하고 민족을 단합시키는 주요한 수단이었고 동시에 목적이었다. 목적과 수단은 서양식 개념으로 파악하면 분리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동양의 그것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고, 이점은 동양사상의 장점중의 하나이다. 특히 제사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그의 권위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장 긴요한 행사였다. 현대의 종교지도자가 신도들에게 승양받는 것과 동일하다. 황제나 왕이나 제후가 집전하는 제사는 그 격이 엄정하게 달랐다. 이른바 四夷가 “祭天”을 하는 것은 중국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다. 三國時代부터 韓國의 역대 王朝는 祭天 문제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빚었다.<sup>2)</sup> 중국의 의도와 달리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祭天은 행해야만 했다. 또 중국의 간섭을 받기 이전, 즉 三韓時代 까지는 제천을 엄연히 해왔던 사실과 결부시켜 곤혹을 느꼈다. 역사상 諸侯國으로서 한국은 제천할 수 없다는 중국 禮樂인식의 최초 승복은 金富軾(1075-1151)의 三國史記 祭祀 조에서 찾을 수 있다. 김부식은 “王制”를 引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王制에 이르기를 천자는 七廟 제후는 五廟이다. …천자는 하늘과 땅,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과 그 땅에 있는 명산대천에 제사 한다. 그러므로 감히 禮를 벗어나서 제사를 행하지 못한다.<sup>3)</sup>

2) 李敏弘: 中世歌謡와 祭天(陶南學報12집 1991)에서 필자는 이 문제를 歌謡와 결부시켜 검토했다.

중국의 禮樂思想이 수입되기 전에 한국은 한국 나름의 전통『禮樂思想』이 있었다. 『禮樂』이라는 명칭은 아니었지만 중국의 禮樂思想과 같은 개념의『民族禮樂』이 존재했다. 韓民族 禮樂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八關會』이다. 우리 韓民族은 아득한 옛날부터 제천을 행해왔다. 陳壽(233-297)의 魏書 東夷傳에 기술된 『『迎鼓·儻天·東盟·歌舞』등의 樂舞는 사실 祭天儀禮에 수반된 것이었다.<sup>4)</sup> 韓民族의 이같은 제천은 중국의 제천의례와는 실상이 여러모로 달랐다. 중국의 史臣들은 韩民族의 고유한 위의 祭天儀禮를 그들의 禮樂思想에 기준하여 저급하고 무례한 행사로 단정했다. 이들 행사중에서『祭天』과『祭地』의 의식이 있음을 본 그들은 이를 특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중국측 사관들의 이같은 인식에서 나온 평가가 이른바『淫祠』요,『越禮』이다. 韩民族의 정통 禮樂思想에 근거한『祭天』과, 제천행사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樂舞』등을 중국적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중국의 제천과 이에 따른 樂舞를 韩民族의 전통 禮樂思想으로 판정하면, 역시 신기하고 의아한 부문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하간 韩民族의 정통 祭儀와 樂舞에 대한 중국측 평가를 金富軾이 긍정한 것은 韓國史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역대의 王은 祭天을 뜯하고, 민족의 정통 악무인 소위 鄕樂(國樂)이 폐하되는 현상에 대해 지배층인 지식인들과는 달리 민중들은 안타까워한 흔적이 곳곳에 발견된다. 在朝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김부식의 견해를 수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재야의 만만찮은 지식인 집단은『稱帝建元』<sup>5)</sup>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칭제건원의 의지는 중국 禮樂思想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코자하는 진보적 지식인의 이념이었고, 이를 다시 말하면 韩民族의 정통 禮樂思想을 구현시키려는 수천년을 이어온 끈질긴 자주의식의 발로이다.

한국 역사속을 끼뚫어 흐르고 있는 이같은 양대 조류를 정리하면,『稱帝建元』의 主體意識과『以小事大』의 現實認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대주의를 현실인식으로 표현한 것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민족과 국가를 보전하기 위해서『以小事大』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우리겨례가 펼쳐 온 역사의 맥락은『稱帝建元』과

3) 金富軾:三國史記 卷第三十二 志 第一 祭祀, 蓋以王制曰 天子七廟 諸侯五廟……又曰天子祭天地 天下名山大川 諸侯祭社稷名山大川之在其地者 是故不敢越禮而行之者歟

4) 陳壽: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夫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濟의 儻天 三韓의 歌舞 등을 기록했는데, 이는 모두 한반도의 고대국가의 民族禮樂에 수반된 樂舞를 지칭한 것이다.

5) 高麗時代의 妙清의 平壤遷都와 稱帝建元을 표방하며 開城의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이같은 민족의식의 발로이다. 朝鮮朝 末葉 高宗의 皇帝位의 登極과『建陽·光武』등의 年號 사용은 그 결실이다. 칭제건원의 표방은 한국사에 허다하게 나타난 주체의식을 기저한 정치적 구호이다.

## 高麗朝 八闕會와 禮樂思想

『以小事大』의 두 바퀴를 근간으로 했다고 생각된다. 高句麗의 광개토대왕이나, 渤海의 高王, 高麗의 왕건태조 등은 칭제건원을 축으로 민족을 통치했고 新羅의 태종무렬왕이나 朝鮮의 이태조 등은 이소사대의 바퀴를 활용하여 민족사를 진행시켰다. 事大主義는 中原에 강력한 통일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韓民族은 유난히 이를 강조했다. 중원이 분열되어 여러나라가 어지럽게 존재하면, 숨겨두었던 『稱帝建元』의 의지를 서슴없이 내세웠다. 황제라는 칭호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대신 『建元』, 즉 年號를 사용하므로써 칭제건원의 염원을 간접으로 실현시키려고 했다. 高句麗의 年號『永樂』을 위시해서 新羅의 『建元』 後三國時代 弓裔王의 『武泰·聖冊·水德萬歲』등의 年號와 渤海 고왕의 『天統』, 그리고 高麗 太祖의 『天授』는 韓民族의 칭제건원의 염원이 실현된 예이다.<sup>6)</sup> 14世紀 말엽 李太祖에 의해 창건된 朝鮮朝는 연호 사용을 처음부터 포기한 체제였다. 李太祖는 스스로 『以小事大』를 표방한 현실적 지도자였다. 이미 세계 최강의 막강한 明朝가 성립된 마당에 어설픈 稱帝建元은 민족과 국가의 참화를 초래할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다. 三國時代와 後三國時代 高麗朝 初期 및 渤海등의 연호 사용은 한결같이 중원에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들어서기 전인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의 점철은 民族禮樂과 中國禮樂의 충돌과 갈등에서 빚어진 한반도 정치의 表象적 단면임을 뜻한다.

西歐의 정치제도가 우리 동양권을 휩쓸기 전에는 전통적인 『禮樂政刑』의 이념으로 통치했다. 그런데 서양 정치사상이 들어온 후 전통적인 동양의 정치이념은 일거에 와해된 듯한 인상이지만, 실상은 일세기도 못가서 서양의 것은 서서히 퇴조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동양권 고유의 禮樂思想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 『政·刑』은 『禮·樂』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일견 서양정치사상에 의해 삽시간에 괴멸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이면에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 그렇지만 동양권의 전통적 정치이념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음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서양음악보다 훨씬 철학적이고 풍부한 音階와 多樣한 악기를 지닌 동양음악이 이처럼 위축된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양음악에 동양음악이 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대 당국자들의 음악정책이 百姓의 기호를 무시한체 고상하고 고답적인 雅樂에 치중한 점도 하나의 동인인 듯하다. 민중들에게 소외된 음악은 아무리政策的 배려가 있다고 해도 오래 존속하기가 어렵다. 春秋戰國 時代에도 백성들은 『鄭聲』과 『衛聲』같은 新聲類를 즐겨했던 사실은 역사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백성

6)李敏弘: 民族樂舞와 禮樂思想(檀國大學 東洋學研究 23집 1993)에서 年號는 새로 등장한 통치자가 百姓에게 내거는 국정의 지표였고, 謂號는 그 통치자가 사망한후 업적에 대한 평가임을 밝힌 바있다.

의 취향을 무시한채 우아한 음악만을 朝廷에서 연주하고 또 이를 백성에게 익히라고 강요해왔다. 그 결과 古代에서 中世에 이르는 동안 樂舞는 二元化되어 그 본래의 사상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魏文侯(?-前396)가 子夏(前507-?)에게 『웃깃을 여미고 冠을 정제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古樂을 들어도 졸음만 오는데, 新樂을 들으면 手舞足蹈하게 되는 까닭이 무어냐』고 물을 정도였다.<sup>7)</sup> 동양의 전통악무가 민중들과의 사이가 벌어져있는 간격속으로 서양의 악무가 침투하여 민중의 樂舞的 정서를 거의 점령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禮樂思想에 동양권의 禮樂思想이 압도되었다는 의미이다. 서양 禮樂思想에 의해 점령된 사실을 두고 우리는 이를 지칭하여 『進步』요, 『近代化』요, 『現代化』라고 착각했다. 이것은 西歐化이지 진보도 근대화도 현대화도 아니다. 서양의 禮樂思想에 침윤된 결과 동양권의 문화가 발달된 점도 많다는 것을 시인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에 심취하면 결국 동양권의 문화가 소멸된다는 비극도 예상해야 한다. 우리는 종교라는 서양식 단어 대신 『祭祀』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흔히 宗教의 개념에는 동양의 正統祭祀를 迷信으로 간주하는 毒素가 있다. 『天主教·改新教』등은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거쳐 西歐로 이어온 그들의 『禮』이다. 이른바 관현악과 실내악을 비롯한 오페라 발레 테너 소프라노 등등은 서양의 악무일 따름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적어도 한국의 경우는 서양의 禮樂思想에 거의 압도당하고 있는 감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半萬年을 존속해온 민족답게 한국 고유의 民族禮樂과 이에 결부된 思想이 완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할수있다.

西洋의 禮樂思想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동양권의 국가는 韓國이다. 社會主義·資本主義 따위의 정치제도와 천주교·개신교 등의 서양종교와 넘쳐흐르는 西歐의 音樂과 세계 각국의 歌謡들이 홍수처럼 도도하게 한국이라는 무대에 늄실거리고 있다. 일찍이 중국의 禮樂思想에 깊숙이 침윤되었다가, 이제는 雪上加霜으로 서양의 禮樂思想까지 범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양의 禮樂思想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든 것을 단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서양의 禮樂思想을 열광적으로 수용하려는 계층은 소위 사회 지도급으로 분류된 지식층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도한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한국에 있어서 主體性의 개념도 대단히 괴이하게 정의되어 있다. 韓國歷史의 短點을 파헤치고 과거의統治者들을 폄하하고 外來의 理念을 찬양하고 外來의 宗教를 예찬하면서, 가장 正統的이고 民族的인 것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것을 일러 『進步』요 『主體性』이라고 대체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樂舞의 경우도 동일하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민족

7) 禮記: 卷十九 樂記, 魏文侯問於子夏曰 吾端冕而聽古樂 則唯恐臥 聽鄭衛之音則不知倦 敢聞古樂之如彼 何也 新樂之如此 何也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적인 악무를 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서양의 악무를 고상한 것으로 확신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印度가 수세기에 걸쳐 장구한 기간동안 英國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면 서도 끝내 獨立을 쟁취한 중요한 이유는 百姓들이 대부분 文盲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는 지식인 집단이 外來文化의 안내 역할을 주로 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실례이다. 모든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의 지식인들이 外來文化에 열광해 왔다는 바를 지적했다. 歌謡의 경우도 동일하다. 교육수준이 얕은 일반 백성들은 정통의 민족가요를 애호하는데 반해, 지식인들은 외래가요에 심취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東洋圏 중에서 大韓民國(南韓)과 中華民國(臺灣)의 민중들이 애호하는 歌謡는 日本風이다. 이는 日本帝國主義의 禮樂政策의 영향이 뿌리깊게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日本은 특히 韓國의 경우 外來宗教를 의도적으로 방방곡곡에 침투시켜 韓民族의 정통적 의식을 변조코자 했고, 이같은 계책이 성공을 거두어 韩民族으로 하여금 유구한 전통을 면하하고 부정하게 만들어 그들의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했다. 自古及今에 민중을 동원하고, 민중의 정서를 사로잡는 것으로 樂舞만한 것이 없다. 지금도 최대의 사람을 동원하는 방법은 역시 음악회나 무용회 등이다. 현재 美國이나 英國 佛蘭西 등의 이른바 선진제국들도 그들의 樂舞를 전세계에 전파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사실 미국의 대중음악은 고도로 발달된 音響器機를 동원하여 모스코바를 점령했고 서울을 휩쓸었다. 서양의 禮樂思想은 이처럼 동양권이 솔선하여 傳來의 正統禮樂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폐기 또는 격하시킨 텅빈 공간에 침투하여 민중의 정서를 석권했다. 이같은 서양악무의 팽배한 범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발전으로 인식하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한국은 일찍이 중국의 禮樂思想에 의해 韩民族 고유의 宗教와 樂舞가 『越禮·淫祀』 또는 『淫哇』 등으로 비하되었다. 중국 측에서만 이렇게 격하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들도 우리의 종교와 악무를 『음사』나 『음와』로 침습했다.<sup>8)</sup> 韩民族 고유의 종교는 佛教나 道教가 아니다. 우리는 불교 도교 기독교 회교 등을 『宗敎』라고 지칭하고 그밖의 각민족의 傳統信仰을 迷信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宗敎』라는 개념도 지나치게 態意의이다. 위에 열거한 佛教·道教·基督教·回教 등만이 종교라고 규정하는 概念設定은 문제가 있다. 중국의 사가들이 기록한 『東盟·迎鼓·儻天』은 韩民族의 『民族禮樂』에 바탕을 둔 宗敎儀式의 일환이다. 이같은 韩民族의 固有의

8)李滉:退溪全書 卷四十三 陶山十二曲 阙에서 東方의 歌曲은 거개가 淫哇하여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가요의 모범으로서 陶山六曲을 창작한다고 했다. 이같은 東方歌曲에 대한 견해는 당시 지식인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신앙을 종교로 인식한 예는 孤雲 崔致遠(857-?)에게 찾을 수 있다. 그는 나라의 玄妙한『道』가 있는데 이를 일러『風流』라고 하고, 그것은『儒·佛·仙』의 思想을 종합한 것이라고 했다.<sup>9)</sup> 우리는 신라의 고유종교인 이를 두고『仙風』 또는『仙教』 혹은『風流道』라고 지칭하고 있다. 孤雲이 말한『仙』은 道教가 아니고, 韓民族 고유의 信仰에 대한 指稱임은 학계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sup>10)</sup> 本稿에서 筆者가 검토할 八關會는 檀君時代부터 즐기차게 전승된 민족정통의 禮樂思想에 의해 창출된 韓民族의 宗敎이며, 그 民族宗教에 수반된 樂舞를 동반한 祝典임을 밝히고 아울러 부족한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성격의 일단을 규명코자 한다. 사실 八關會 속에는 東盟과 過鼓의理念이 수렴되어 있고, 傳天 등의 三韓時代의 民族禮樂이 상당부분 잔존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갖가지 행사나 의식등에 그 殘影이 남아있을 것이다. 八關會의 실체가 밝혀지면 중국의 禮樂思想에 의해 매몰되었던 韩民族 고유의 종교와 이에 따른 악무의 일단이 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韓民族은 단일 민족이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고찰해보면 두개의 커다란 갈래가 경쟁적으로 존재하면서 복합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夫餘系와 三韓系가 그것이다. 이들이 동일한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가진 同族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夫餘系 先民은 滿洲지방이 주무대였다면, 三韓系는 鴨綠江 이남의 한반도가 주된 영역이었던 관계로 기후와 풍토등에 영향을 입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시인해야 한다. 필자는 이에 관해서 歷史學的 접근을 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 중국의 사가들이 다만 韩民族의 祝典 정도로 축소시켜 기록한『鼓樂』을 필두로 한 夫餘系의 祝典『迎鼓』와『東盟』,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다고 생각되는 漢國의『傳天』과 三韓系의『歌舞』등은 사실 韩民族의 宗敎儀式의 일단을 기술한 것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그들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오로지 樂舞에다 초점을 맞추어 기술했다고 필자는 믿고 싶다.『迎鼓·東盟·傳天』등의 의식에는 분명히 하늘과 땅에 제사하는『祭天·祭地』의 종교의식이 있었다. 중국측 사관들이 볼 때, 일개 諸侯國으로서 감히『祭天·祭地』의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고 불만스러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같은 韩民族의 제천 및 제지를 비롯한 여타의 종교의식을 칭하여『淫祀』라고 규정하고, 樂舞에다 관심을 두어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으로 임했던 것 같다. 八關會는 夫餘系나

9) 三國史記:眞興王 三十七年條와 孤雲集 事蹟항에 新羅에는 民族宗教를 근간으로 하여 儒佛仙을 포함시킨 특유의 종교가 있었음을 밝혔다.

10) 崔珍源:國文學과 自然(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77)에서 仙風의『仙』은 민족고유의 신앙과 관계가 있음을 論定했다.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三韓系의 우리 민족 모두의 종교의식과 이에 수반된 악무를 포함한 것이지만, 夫餘系의 宗敎 및 樂舞가 주류를 이루었고, 三韓系의 그것은 좀 비중이 약하지 않았나 한다. 그 이유는 高麗 太祖 王建(877-943)이 한반도 중부인 開城 사람이었고, 아울러 高句麗를 계승한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3. 八關會와 民族禮樂

禮樂思想은 당시 세계제국이었던 중국에서 형성된 종교 및 통치이념을 근간으로 한 古代와 中世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였다. 中原의 漢民族은 東洋을 지배함에 있어서 禮樂思想을 근간으로 활용했다. 그것은 주변의 異民族국가를 복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禮樂思想에 입각한 이민족의 지배는, 지배당하는 이민족으로 하여금 스스로 즐겨 복종케하는 절묘한 수단이 되었다. 군사를 동원하여 피비린내를 풍기는 정벌도 필요가 없었다. 중국 주변의 민족 가운데, 중원의 禮樂思想에 가장 심취한 민족은 韓民族이었다. 『東方禮儀之國』이니 『小華』이니하는 명칭은 그렇게해서 얻어진 것이다. 韩民族이 중국의 禮樂思想에 특히 심취한 年代는 대체로 15세기 무렵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진심으로 경도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大帝國 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수용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우리가 朝鮮朝를 실상보다 나쁘게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明朝에 의한 거의 완벽한 中國의 통일과, 이에 따른 막강한 국가적 힘앞에 朝鮮朝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수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여하간 중국은 禮樂思想이라는 이념을 활용하여 동양세계를 지배한 제국주의의高手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주변의 일부 민족이 스스로 기쁘게 복속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禮樂思想에 15세기 이후 韩民族이 그처럼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 事大主義의 인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취해 있었다. 禮樂思想이 黃河유역에서 형성되었다면, 일찍이 韩民族은 黃河유역에 살았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 즉 禮樂思想의 성립에 韩民族도 음양으로 가담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禮樂思想 자체가 韩民族의 정서에 부합되는 면이 많음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中原은 皇帝國이고 韩半島는 諸侯國이라는 정치적 인식에는 상당히 민감했다. 朝鮮朝의 지식인들도 한국을 실질적으로 완벽한 제후국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明朝는 물론이고, 특히 清朝 時代에는 아예 그같은 인식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後三國時代 泰封國의 創業主 弓裔(?-918)는 당당하게 『建元』을 한 지도자였다.<sup>11)</sup> 궁예왕은 잠복했던 韩民族의 固有宗教와 樂舞를 수렴한 八關會를 역사의 표면으로 부

각시킨 특이한 지도자였다. 高麗朝와 朝鮮朝의 지식인들에 의해 과소평가 또는 왜곡평 가된 민족지도자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그를 재평가하여 가진 바의 훌륭한 주체성과 업적을 회복시켜 줄 의무가 있다. 八關會가 高麗朝 五百年間의 국가적 민족의 정통 祭儀와 樂舞 구실을 할 수 있었던 動因의 가장 큰 역할은 泰封國의 創業主 弓裔王에게 돌려야 한다. 新羅時代에 八關會가 국가적 행사로 존재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고찰되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三國史記에 이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몇군데에 보이는 것도 불교적 행사로 여겨지고 이것 역시 舉國的 祭儀는 아니었던 듯하다.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八關會는 주로 佛教와 관련되어 있다. 이점은 八關會를 佛敎行事로 보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八關會가 불교의 의식으로 여겨지는 것은 『八關』이라는 用語가 불교儀式의 하나로 實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漢字式 용어 표기에 현혹되어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잘못 이해한 사례가 간혹 있다. 순수한 우리말의 音借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訓이나 漢字語 그 자체로 오해한데서 기인되었다. 高麗忠烈王代에 승려이면서 碩學이었던 一然(1206-1289)조차도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니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우리 韓民族의 固有한 文化에 관한 일들이 漢文式으로의 접근으로 말미암아 잘못 알려진 사례가 非一非再하다. 그 예로서 新羅의 國語 歌謡로 짐작되는 『智理多都波都波』를 들 수 있다. 一然은 이 노랫말을 나라가 혼란해져 많은 뜻있는 지식인들이 隱居했다는 내용이라고 풀었다.<sup>12)</sup> 물론 一然이 당시 있었던 문헌이나 견해를 移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이같은 해석을 긍정하지 않았다면 轉載하지 않았을 것이다. 『智理多都波都波』가 무슨 뜻인지는 불명이지만, 많은 지식인들이 도피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확실하다.<sup>13)</sup> 八關會의 『八關』도 순수한 韓國語를 漢字語를 빌려서 표기한데 불과하다. 일찍이 六堂 崔南善(1890-1957)은 八關會에 대해서 주목되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祭天大會를 新羅 중엽에는 八關會라는 이름으로 設行하여 弓裔의 泰

11) 金富軾: 三國史記 列傳 第十 弓裔, 天祐元年甲子 立國號爲摩震 年號爲武泰 ……入新京 修葺觀闈樓臺 窃奢極侈 改武泰爲聖冊元年…… 朱梁乾化元年辛未 改聖冊爲水德 萬歲 改國號爲泰封……四年甲戌 改水德萬歲爲政開元年。

12) 一然: 三國遺事 第二 處容郎望海寺, 語法集云 于時 山神獻舞 唱歌云 智理多都波都波等者 盖言以智理國者 知而多逃 都邑將破云謂也 乃地神山神知國將亡故 作舞以驚之

13) 一然의 三國遺事에 의하면 山神이 춤을 왕에게 바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그는 이 내용을 『語法集』에서 인용했다고 했다. 語法集이 어떤 책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의 古歌謡가 수록된 책이거나 아니면 佛教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가 확실치 않다.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封國과 王氏의 高麗朝에서 다 이것을 계승하고 高麗朝에는 每年 仲冬에 국가의 힘을 다하여 이를 실행하여 君民上下가 즐거움을 함께하니 대개 八關會라는 글자는 佛教에서 빌어 온 것인데 실상은 『밝의 뉘』의 音相似한 것을 취하였을 따름으로서 新羅 高麗의 八關會는 佛教와 아무 관계없는 옛날 『밝의 뉘』의 遺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sup>14)</sup>

六堂은 八關會는 佛教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韓民族의 가장 오래된 民族禮樂과 직결된 고유의 儀式임을 천명했다. 八關會를 三國時代 이전부터 존속해온 韩民族의 祭天儀式的 계승이라는 견해는 탁견이다. 이는 韩民族의 禮樂思想에 입각한 宗敎로 인식해야 할 전통 의식이다. 八關會의 『八關』을 『밝의 뉘』의 表記로 단정한 육당의 慧眼에 박수를 보내야한다. 『밝의 뉘』는 누리를 밝힌다는 의미이다. 『밝』은 赫이고 『누리』는 世相인데, 이는 新羅始祖에 대한 韓國 固有의 謂號인 『朴赫居世』의 개념과 상통한다. 『朴』은 『밝다』의 『밝』이며 『赫』은 밝힌다는 뜻이고, 『世』는 세상(世界)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朴赫居世를 『弗矩內』라는 鄉音(新羅語)의 표기라는 三國時代 史書들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sup>15)</sup> 六堂은 『밝의 뉘』를 祭祀때 무수한 등불을 밝혀서 光明이 세상에 충만하라는 光明世界를 기원하는 表象이라고 설명했다. 朴赫居世라는 칭호는 韩民族의 謂法으로 볼 수 있는바, 즉 누리를 光明의 세계로 만든 『민족의 太陽』이라는 의미이다. 新羅始祖에 대한 이같은 호칭은 아마도 그에게 거는 당시 민중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생시 또는 死後에 붙여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韩民族 特有의 일종의 謂法으로 필자는 규정한다. 八關會는 檀君朝鮮 시대부터 계승되어온 韩民族의 正統宗教와 樂舞를 포괄한 축전이다. 다만 중국으로 부터流入된 禮樂思想으로 인해 宗敎의 인 축면은 배제 내지 과소평가 되고, 樂舞 쪽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八關會가 百戲歌舞의 놀이마당으로만 인식된 점은 잘못이다. 謂法은 帝王이 서거한 후, 그 업적의 성향에 따라 부치는 칭호인데, 중국의 경우는 『祖·宗』이라는 글자 앞에 그 통치자의 업적에 부응하는 『太·成·文·武·靖……』등을 부친다. 中國 禮樂思想의 일단인 이같은 謂號를 우리는 三國時代 부터 사용해왔다. 高句麗 百濟는 일찍부터 사용했지만, 新羅는 고집스럽게 민족의 고유 칭호인 『居西干·次次雄·尼師今·麻立干』을 오랫동안 사용했

14)崔南善:朝鮮常識問答(三星文化財團 再發行本 1972)148頁, 朝鮮民族敎의 來歷을 들려주시오에 대한 답변.

15)一然:三國遺事 卷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다. 이들 명칭은 韓民族의 최고 통치자에 대한 호칭이다. 중국의 皇帝 및 王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韩民族은 중국의 謂法에 해당하는 최고통치자의 호칭과 사후에 그 업적을 평가한『廣開土』를 위시한『赫居世·南解·脫解·儒理·味鄒』와 같은 자체의 固有 謂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新羅 法興王 이전의 諸王들의 호칭에 대해 韩民族의 禮樂思想에 기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法興王(?-540)은 新羅에서 최초로 중국식 지도자에 대한 칭호를 사용한 왕이다. 王의 死後 중국 禮樂思想에 기준하여 謂號를 최초로 받은 지도자는 智證麻立干이다. 『麻立干』을 끝으로 우리 고유의 최고 통치자에 대한 호칭은 중국식인『王』으로 대체되었다.<sup>16)</sup>

우리는 韩民族의 특유한 禮樂思想의 융합체인 八關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왔다. 舊事大主義者들에 의한 中國文化의 심취와, 新事大主義者에 의한 日本과 西歐文化에의 傾倒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中國과 日本과 西歐의 文物에 대한 심취는 한국의 문화를 높은 위상으로 격상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한민족 스스로가 창출한 民族文化에 대해서 대체로 몰이해할 뿐 아니라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있다. 이쯤되면 그들의 이식은 한국인이 아니라 아마도 國籍을 바꾸어야만 그들의 위상이 적절하게 평가될 성싶다. 세계각국의 지식인치고 외래문화에 몰두한다고 해서 자기 것을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예는 없다. 있다고해도 소수일 것이지, 한국의 역대 지식인처럼 결코 다수는 아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보다 현재의 지식인이 더욱 우리것을 배척하는 정도가 심하다는데 있다. 八關會같은 역사적인 儀式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六堂 이후에 거의 없었다는 점도 그 증거가 되겠다. 그많은 高名한 歷史家들과 文學家 그리고 政治家들도 오직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비판하고 약점을 찾아내는데 심혈을 경주했고, 약점과 단점을 발견하면 위대한 발명이나 한 듯이 우쭐대었고, 그것에 대해 독자들도 덩달아 喝采를 보내며 기뻐해 마지않았다. 八關會의 중요성을 찾아내고 선양했던 六堂조차 親日로 경사되어 비극적인 말로를 맞은 것은 우리 민족문화의 불행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六堂 다음으로 八關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玄相允(1893-?)이다. 그는 朝鮮思想史에서 八關會를 神道思想의 일환으로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崔南善氏는 八關會를 三韓時代의 祭天大會의 名稱이던 弗矩內의 漢譯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그 確否는 알수가 없으나 그 意義와 内容에 있어서는 確實히 朝鮮古來의 神道思想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듯하다. ...

16)金富軾: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智證麻立干,十五年 秋七月 徒六部及南地人戶充實之 王薨 謂曰智證 新羅謚法始於此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八關會의 内容과 性質을 보면 所謂 佛教 從來 八戒를 關閉한다고 하는 八關齋나 八關戒의 그것은 조금도 없고 도리어 朝鮮古神道 의 祭天大會의 그것과 秋毫도 틀리지 않는다. 卽, 八關會의 儀式은 每年 十一月에 關內의 儀鳳門東殿階下에 二層 浮階를 매고 式場을 宏壯히 設備하고 十四日로 부터 十五日에 걸쳐 王이 太子와 百官을 거느리고 그리로 出御하여 미리 排設하여 놓은 天神祖靈의 靈前에 再拜酌獻의 禮를 행하고 돌아 나와서 文武百官의 代表와 地方長官의 賀表를 받고 嚴肅한 奏樂裡에 盛大한 饗宴을 舉行하고 이 밖에 여러 節次가 끝난 후에 大關의 廣場을 開放하여 人民들의 準備한 各種各色의 餘興군을 차례로 불러들여 그 餘興을 구경하며, 또 동시에 다수한 人民들의 觀覽을 許하여 君民同樂의 實을 드러내며 이 宴會에는 女眞 宋 倭등의 外國 商客과 居留民들도 禮物을 獻納하고 또 招請을 받고 있는 것이다.<sup>17)</sup>

中原의 禮樂思想에 의거하면 諸侯의 王은 祖나 宗을 불일 수 없고, 自體 年號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朕」이라는 칭호도 쓸 수 없을 뿐아니라, 奏나 表등의 용어도 쓰지 못하고 天子에게 정기적으로 入朝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國時代부터 高麗 朝鮮朝까지 줄곧 「祖·宗」등의 어휘를 사용했고, 元의 駙馬國 시대를 제외하고 입조한 적도 없다. 단지 元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高麗 말엽에는 「忠0王」 등으로 격하된 적은 있었다. 그 이전까지 高麗王은 스스로 朕이라고 불렸고, 위에 인용된 것처럼 「表」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高麗朝는 상당히 주체적이고 民族禮樂에 의해 나라를 통치한 흔적이 곳곳에 발견된다. 종교의 경우도 中國禮樂에 압도되지 않고 民族宗教의 성향을 간직한 八關會를 국가적 차원에서 거행했다. 위에 인용한 현상윤의 글은 현상윤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高麗史에 실린 八關會에 대한 기록의 충실한 번역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장황하게 인용했다. 현상윤은 최남선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八關會가 神道思想에 일환이라는 점과 그것이 佛教와는 관계가 없는 韓民族의 祭天儀式의 계승이며 한민족 傳來의 五嶽과 名山大川 승배와 관련시켜 이해한 부분은 정곡을 찌른 탁견이다. 八關會에서 新羅의 「三山五嶽」에 대한 승배의식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高麗 太祖의 八關會儀式의 영역 설정속에 五嶽과 名山大川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三山五嶽」의 승배도 얼마간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삼산오악의 승배는 한민족의 正統 宗教儀式이다. 高麗朝가 三山을 언급하지 않고 五嶽만 강조한 것은 삼산

17)玄相允:朝鮮思想史(檀紀4282년-西紀1949) 第五章 高麗時代의 神道思想과 그 變遷.  
100-101頁 八關會.

이 新羅의 禮樂과 깊이 관계된 까닭일까. 이는 후고를 요하는 점이다. 三國史記 祭祀조에 나오는 三山五嶽의 숭배는 중국의 禮樂思想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족고유의 종교이다. 중국의 禮樂思想이 들어와 그 세력을 확장한 이후부터 삼산오악의 숭배는 국가적 차원에서 벗어나 民間信仰으로 격하되었다. 三山五嶽에 대한 祭祀가 쇠퇴하거나 혹은 국가행사에서 배제된 까닭은 그것이 祭天 또는 祭地의 의식을 겸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민족은 제천의식을 삼산오악에서 제지와 더불어 병행하여 당당하게 행하고 있었다. 三國史記의 禮 부문인 제사 조와 高麗史 등의 禮樂志는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하다. 高麗史에는 삼산오악에 대한 제사 기록이 없고, 중국식의 圓丘나 翡田 社稷등이 강조되어 있다.<sup>18)</sup>

玄相允이 제시한 八關會의 행사중에 倭를 비롯한 女眞과 宋商이 참석하고 있다. 이 경우 八關會를 개최하는 高麗王은 帝王으로 군림하면서 女眞族과 黑水의 鄂長이나 倭國의 사신을 비롯한 東西蕃과 宋나라의 商客들과 耽羅國의 사신과 각지방 郡縣의 대표들이 貢物을 바치고 入朝하여 朝會를 행하는 위엄을 갖추었다.<sup>19)</sup> 高麗가 중심이 된 동북아의 커다란 세력권이 확연하게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아마도 과거 高句麗가 만주의 전역과 한반도의 북부를 차지하고 大帝國으로 군림했을 때, 그들의 국가적 행사였던『東盟』이 거행되는 기간중에 광대한 판도에 거주하는 말갈 숙진 여진 등등의 각민족이 참여했던 전철을 되살린 듯하다. 高麗는 스스로 高句麗의 계승국가임을 천명했고, 北方領土의 회복을 국책으로 삼은 사실이 참고가 된다. 高麗는 건국과 동시에 과거 高句麗의 수도였던 平壤을 西京으로 격상시켜 대대적으로 重建했다. 그리하여 거의 의무적으로 高麗왕으로 하여금 일년에 수차례 서경에 행차하여 머물도록 했던 것이다. 高麗의 거국적 의식이었던 八關會에는 당시 宋을 비롯하여 倭와 東西蕃의 나라들과 黑水의 諸國들과 耽羅國 등이 貢物을 바치고 참관한 사실은 그 의미가 크고도 깊다. 이는 八關會를 高麗가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고, 주변의 국가들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거국적 행사였으며, 그 주된 목적은 역내 민족의 대동단결과 주변국가의 臣屬

18) 金富軾: 三國史記 祭祀條에는 그 첫머리에 三山이 나오고 다음으로 五嶽이 나온다. 이 것은 신라가 행한 가장 중요하고 큰 祭儀임을 의미하고, 중원의 예악사상에 영향받지 않은 한민족의 예악사상에 의해 祭祀가 행해졌음을 말한다. 大祀 中祀 小祀의 개념이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다르다. 삼국사기의 大祀는 三山인데 반해 고려사의 大祀는 圓丘이다. 雜祀條에 전통적 三山五嶽에 대한 숭배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19) 高麗史: 世家 卷第六 靖宗元年十月 …… 西京八關會酬二日 …… 庚子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酬 夕幸法王寺 翼日大會 又賜酬 觀樂 東西二京 東北兩路兵馬使 四都護 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 東西蕃 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에 있었다. 八關會는 중국의 禮樂思想과는 상충되는 면이 많았다. 오히려 이 儀式에서 祭天을 했으니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국적인 제천의식을 중심한 중국 禮樂思想에 위배되는 행사를 宋이 용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송은 북방의 契丹·遼·金 등과 공존하는 실정이었고, 그러므로 북방을 완전하게 평정하지 못했다. 당시 동양은 宋과 高麗 그리고 契丹·遼·金으로 이어지는 북방과 세력균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宋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건국과 거의 동시에 高麗는 중국의 禮樂思想에 위배되는『天授』라는 연호를 당당하게 사용했다. 王建은 처음에 泰封의 연호『政開』를 改元하는 형식을 취했다. 즉 後高句麗(高麗) 摩震 泰封으로 국호가 바뀐 弓裔王의 建元精神을 계승한 것이다. 弓裔王은『武泰』에서 聖冊으로, 聖冊에서『水德萬歲』, 水德萬歲에서『政開』로 國號만큼이나 연호를 자주 바꾸었다. 王建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후, 高麗라는 국호가 고정되면서 天命을 받아 나라를 세웠음을 과시한 年號『天授』를内外에 선포한 것이다.

高麗 태조 왕건은 중원의 禮樂思想에 의해 한반도의 정치가 좌우되는 것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 이점은 그가 전복시킨 궁예왕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세계 최강의 唐帝國의 한반도정책을 힘입어 이른바 三韓一家를 이룩한 統一新羅는 민족주체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자체 연호를 사용하지 못했고, 天地에 祭祀를 지내지 못했으며, 唐나라의 정치제도와 服色까지도 수용해야 했다. 물론 新羅가 스스로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당의 문물제도를 솔선하여 채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거개가 힘에 놀려 마지못해 시행했다. 渡唐 유학생들과 빈번한 사신의 교환과 상인들의 왕래는 한반도에 唐風이 거세게 이는 측면 역할을 했다. 특히 文武官員과 상부계층의 服色을 唐衣로 바꾼 것은 무엇보다 큰 영향을 주었다.<sup>20)</sup> 인간의 성정을 바꾸는데 크게 작용하는 것중의 하나가 衣服과 飲食과 樂舞이다. 당시 한반도의 지배계층은 唐衣를 입고 당으로부터 유입된 唐音을 듣고 西域과 北方의 樂舞를 즐기고 있었다. 崔致遠에 의해 소개된『鄉樂雜詠』에서 이미 향악으로 정착되어 당시의 백성들이 열광하던 西域의 樂舞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sup>21)</sup> 韓民族의 정통문화가 쇠퇴하고 중국 禮樂思想에 휩쓸려 주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에 弓裔같은 지도자는 응당 나오기 마련이다. 최초에 중국식 謂號를 받은 智證麻立干은 新羅社會에 낯설은 律令制를 도입했고, 그의 아들 法興王은 고유의『麻立干』등의 칭호를 버리고 중국식의『王』호를 사용했다. 그후 중원은 隋에 이은 唐

20) 金富軾: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五, 真德王二年……春秋又請改其章服以從中華制……三年春正月 始服中朝衣冠

21) 三國史記 樂에 소개된 崔致遠의 樂舞詩 鄉樂雜詠 五首중에 狼狽는 西域 獅子國의 樂舞이고, 그밖의 한두개도 異國的인 樂舞이다.

帝國이 들어서서 강력한 제국주의식 통치를 주변국가에 펴나갔다. 이런 와중에서 武烈王 金春秋(602-661)는 한반도 고유의 禮樂思想을 잠깐 포기하고 중국의 禮樂思想을 수용한 것이다. 그 이후 統一新羅는 中原의 禮樂思想에 거의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다. 그러나 당제국이 멸망하고 중원이 분열되자, 잠재되었던 韓民族의 주체의식은 요원의 불길처럼 되살아났다. 이같은 민족적 염원을 구현한 지도자가 바로 궁예왕이고, 그 궁예왕의 뜻을 계승하여 심화확대한 왕이 高麗 태조 王建이다. 실제로 태조 왕건은 三國時代 후반과 統一新羅 이후로 잡복되었던 韩民族의 禮樂思想을 중흥시킨 위대한 지도자였다. 우리는 高麗 이전에 줄곧 주체사상을 펴나갔던 北國 渤海를 잊을 수 없다. 渤海는 始祖 高王(재위699-719)부터 말기의 舜震王까지 자체의 연호를 계속 사용했다.<sup>22)</sup> 高麗 태조는 특히 渤海國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고, 渤海를 멸망시킨 契丹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표했다. 아마도 渤海의 주체적 建元精神을 평가한 듯하다. 韩民族의 주체적 禮樂思想은 10세기 무렵 王建에 의해 중흥되어 그 진면목을 마음껏 발휘했다. 王建은 후세 그를 계승할 高麗王에게 다음과 같이 韩民族 고유의 禮樂思想을 개진하면서 영원히 이를 지속시키라고 당부했다.

우리 東方은 옛부터 唐의 風俗을 본받아 文物禮樂이 모두 그 制度를 준수하여 왔으나, 지역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으면 인성 역시 다르게 마련이니 반드시 荷且하게 꼭같이 할 필요가 없다. 契丹은 禽獸와 같은 나라인자라 풍속이 다르고 언어도 같지않은만큼 그 衣冠制度를 삼가 본받지 말아라. ....朕은 三韓山川의 陰佑를 받아 大業을 성취했다. 西京은 水德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며 大業을 萬代에 전할 땅이니 마땅히 四仲月에는 巡駐하여 百日이상 머물어 安寧을 이루도록 하라. ....朕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燃燈과 八關인데, 燃燈은 佛을 섬기는 것이고 八關은 天靈과 五嶽 名山 大川 그리고 龍神을 섬기는 바이니, 後世에 臨臣이 加減을 建白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sup>23)</sup>

22)渤海는 高王의 年號 『天統』을 비롯하여 武王의 『仁安』, 成王의 『中興』, 康王의 『正曆』, 定王의 『永德』, 僖王의 『朱雀』, 簡王의 『太始』, 宣王의 『建興』등의 廿호를 계속 사용하여 稱帝建元의 주체의식을 미흡하나마 실천코자 했다.

23)高麗史:卷第二 太祖二, 二十六年夏四月 ....惟我東方 舊慕唐風文物禮樂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慎勿效焉 五曰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宜當四仲巡駐留百日 以致安寧 其六曰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 建白加減者 切宜禁止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한민족의 禮樂思想을 논하려면 八關會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된다. 八關會는 실로 한민족의 정통 종교와 사유와 정감이 깃든 의식이며, 八關會 의식 다음에 연희되었던 百戲歌舞는 民族樂舞의 總和였다. 八關會의 부흥과 발전은 중세이전 한민족 주체사상의 발휘이며, 그 쇠잔과 소멸은 중국 禮樂思想의 승리이다. 後三國時代와 高麗時代에 되살아난 八關會는 民族禮樂의 강인성과 연연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八關會와 新羅『仙風』과 그리고『花郎制度』와의 상관성도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新羅의 仙風과 무관한 것은 아닐지라도, 八關會는 성격상 차이가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仙風』은 崔致遠이 지적했던 新羅의 玄妙之道인『風流』와 더욱 밀착된 듯한데 반해, 八關會는 夫餘系의 禮樂에 보다 경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八關會』의 體를 부여 계의 民族禮樂으로, 『仙風』의 體를 삼한계의 民族禮樂의 구현으로 상정하고 있다.

高麗 太祖 王建은 그가 창건한 국가의 정통을 高句麗에 두었고, 그러므로 平壤을 매우 중시했다. 新羅는 높이 평가한 것 같지도 않았던 것 같고, 따라서 徐羅伐은 중시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의 통치구조상 前朝의 수도였던 徐羅伐을 훼철한 후 慶州로 강등시킬 필요가 있었다. 반대로 平壤은 매우 중요시하여 西京으로 격상시키고 대대적인 이민과 증수를 지시했다.<sup>24)</sup> 그는 위에 인용한『訓要』에서 新羅가 唐의 문물제도를 받아드리고 중국의 禮樂에 침윤된 사실을 비판하면서 구차스럽게 당과 꼭 같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힐난했다. 唐의 문물을 준수하고 중국의 禮樂思想을 존중하는 것이 조국의 발전으로 생각했던 新羅시대의 일부 풍조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중국이고 高麗는 高麗라는 인식은『殊方異土』이니 人性이 어찌 唐과 같을 수 있느냐는 그의 항변은 현재의 우리들도 주목할 견해이다. 지금은 唐 대신 西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王建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西歐와 구차스럽게 같을 필요가 있느냐고 외칠 때가 온 것이다. 太祖는 스스로를 皇帝만이 칭할 수 있는『朕』이라는 용어를 위엄있게 구사하며 渤海를 멸망시킨 契丹에 대해서 특히 그 문물을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며 짐승과 같은 국가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서 八關會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天靈과 五嶽 名山 大川 그리고 龍神』을 섬기는 의식이라고 규정했다. 八關會가 비록 부여계의 民族禮樂에 보다 접근한 의식이긴 하나, 삼한계인 新羅의 선풍의 요소도 수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王建은 八關會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부여계와 삼한계의 종교의식과 악무까지도 통합한 英主이다. 八關會의 天靈 숭배는 한민족 정통의 祭天의 계승이요, 五嶽 名山 大川의 숭앙 역시 祭天 및 祭地의 전승으로 여겨진다. 본

24)高麗史:卷第一 太祖一, 丙申諭群臣曰 平壤古都荒廢雖久 基址尚存 而荆棘滋茂 蕃人遊獵於其間……宜徒民實之 以固藩屏爲百世之利. ……五年冬十月幸西京 新置官府員吏 始築在城 親定牙善城民居

래 이같은 八關會의 성격은 高麗朝에서 이 儀式이 진행되는 동안 약간의 변질이 있었는 바, 이점은 다음장에서 검토하겠다. 高麗 태조의 중국 禮樂思想의 전폭적 수용을 부정하는 주체적 사상과 행동은 四夷를 중국의 禮樂思想으로 통일하려는 『會通意識』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宋代의 鄭樵(1104-1162)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會通意識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있다.

모든 강물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만 전부 바다에 봉인다. 그렇기 때문에 九州가 물에 잠기는 해를 면한다. 모든 나라가 제각기 상이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은 결국 모두 중국으로 통한다. 그러므로 온누리가 막히고 정체되는 근심이 없다. 모든 것이 중국으로 봉이고 귀착되는 『會通』의 의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자고로 書契가 있은 이후로 立言한 사람들은 비록 많지만, 오직 孔子만이 天縱의 聖으로써 詩·書·禮·樂의 典籍들이 모두 그의 손에서 같은 척도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天下의 文이 통일되었다<sup>25)</sup>

모든 강은 흘러서 바다에 봉이고, 모든 길은 中原으로 通하기 때문에 중국이 물에 잠기지 않고 천하가 원만하게 유통되며, 詩書禮樂이 孔子의 손에서 산정되었기 때문에 번잡과 혼돈이 없는 同文이 이룩되었다는 中華思想의 결정적인 표현이다. 중국에 의한 세계의 모든 분야에 걸친 통합과 통일을 천명했다. 그들은 中原의 禮樂思想으로 이를 실현코자 했고 또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禮樂思想은 百萬大軍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 주변국가에 無血入城이었고, 四夷 스스로 기꺼이 중국의 질서속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게 하는 妙藥이기도 했다. 그러나 蒙古族과 葉丹族 女眞族 등은 중국의 禮樂思想을 즐겨 수용하지 않았다. 禮는 물론이고 樂도 기꺼이 수용하지 않았다. 韓民族이 중국의 악무를 民族樂舞보다 상위에 놓은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中世 한국의 지식인들은 蒙古와 日本 西夏 티베트 등과 달리 固有의 문자를 쓰지 않고 중국과 같은 漢字를 불편없이 훌륭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에 공지를 느꼈다. 이른바 同文意識이다. 世宗大王의 한글 創制에 대한 崔萬里(世宗代人)의 반대 上疏文이 그 예이다.<sup>26)</sup> 그러나 일부

25)十通:第四種 通志(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6年)總序, 百川異趣 必會于海 然後 九州無浸淫之患 萬國殊途 必通諸夏然後 八荒無壘塞滯之憂 會通之義大以哉 自書契以來 立言者 雖多 惟仲尼以天縱之聖故 總詩書禮樂而會於一手 然後能同天下之文

26)朝鮮王朝實錄:世宗二十六年 甲子二月, 庚子 集賢殿副提學崔萬里等上疏曰, ……一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僥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唯蒙古 西夏 女眞 日本 西蕃之類 各有其字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지식인들의 이같은 事大的 同文意識을 세종(1397-1450)은 단호하게 일축했다. 이는 일부 지식인들의 사대의식에 대한 경종이었다. 최만리가 한글은 新字가 아니고 古字라고 지적한 사실은 주목된다. 한글, 즉 訓民正音을 한국의 文獻通考에서는 音樂部門에다 편집했다. 문자를 禮樂思想의 일환으로 이해한 것인지 조만간 속단키 어렵다. 蒙古族女眞族 티베트족 등은 그들의 문물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했는데 반해 한민족은 가슴을 활짝 벌리고 중국의 문물을 수용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이고 본질문제만은 결코 외래의 것을 수용하지 않는 지혜도 있었다. 南宋의 鄭樵가 말한 『同文』은 文字를 같이 쓴다는 의식에만 머물지 않고, 文物 전반에 걸친 同軌를 의미했다. 樂律과 度量衡 등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었다.

宋代의 徐兢(1090?-1153)은 高麗 仁宗 1년 1123년에 開京에 사신으로 와서 보고 들은 바를 그림과 함께 적은 高麗圖經을 저술했는데, 이 책의 『同文』조에 중국의 會通意識과 中華思想이 잘 나타나있다. 그는 正朔과 樂律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中國化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宋은 北方民族의 힘에 눌려 위축될대로 위축된 기간이었다. 12세기 무렵 중국 주변의 제민족들은 중국 중심의 會通意識이나 同文意識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고 禮樂을 창출하거나 그들의 고유한 禮樂을 준수하고 있었다. 이같은 고유의 民族禮樂을 지니고, 그것을 준수하는 이른바 塞外民族에게 중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晉朝가 그러했고 宋朝 역시 염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明朝의 비극적인 최후가 그 실례이다. 北宋에서 南宋으로 위축되면서 宋朝는 가일층 『同文』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徐兢이 同文意識을 그처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中原의 『正朔』과 『儒學』『樂律』『權量』으로 동양권을 會通코자 한 것이다.<sup>27)</sup> 세종시대에 고유문자를 창조하려는 王과 이에 동조하는 集賢殿 지식인들의 자주의식과, 중국의 同文政策을 지속하려는 보수세력이 충돌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崔萬里로 대표되는 同文主義者들의 패배로 끝났다. 15세기에 중국의 禮樂思想의 일환인 同文主義의 패배와 國字 創制를 주장한 세력의 승리는 『民族禮樂』의 진전을 뜻하는 사건이었다.

10세기 무렵 新羅 渤海가 양립했던 南北國時代가 끝나고, 後三國時代가 전개되면서 대두된 韓民族의 주체적 禮樂思想은 궁예왕의 建元과 수도 개성에서 대대적인 八關會의 奉行으로 결실을 맺었다.<sup>28)</sup> 자주적인 民族禮樂 인식이 대두되어 성장하고 그리고

是皆夷狄事耳

27)徐兢:高麗圖經 第四十卷 同文, 臣聞 正朔 所以統天下之治也 儒學 所以美天下也 樂律 所以導天下和也 度量權衡 所以示天下之公也

28)金富軾:三國史記 卷第五十 列傳 第十 弓裔, 善宗謂松岳郡漢北名郡 山水奇秀 遂定以爲

열매를 맺은 것은 당시의 동양권의 정세와도 관련이 있다. 이 기간은 漢民族이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위축됐던 시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北方民族에 밀린 宋朝의 쇠퇴와 이와 병행하여 등장하는 『契丹·遼·金』과 이들을 압도하고 동양을, 나아가선 세계를 장악한 蒙古族의 성장은 中華思想의 잠복을 의미한다. 15세기의 훈민정음 창제를 禮樂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은, 한글 창제가 同文主義에 반기를 든 것이며, 또 훈민정음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문헌비고에 『樂』속에 편입된 사실도 하나의 증거가 된다.<sup>29)</sup> 契丹과 遼·金 등의 북방민족 국가들 거의 모두가 稱帝를 했고 따라서 建元을 했으며 그들의 民族樂舞를 國樂으로 인정했다. 이는 韓民族이 雅樂을 國樂으로 여기고 民族樂舞를 鄉樂으로 인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弓裔王의 연호 聖冊3년(907)에 唐帝國은 소멸되고, 漢族國家인 宋朝는 960년에 출현했다. 高麗 태조 왕건이 八關會를 거국적 의식으로 영원토록 존속시켜야 한다는 勅令 訓要를 선포한 해는 天授26년 서기 943년이다. 八關會와 궁예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궁예왕의 稱王은 901년이고, 年號 武泰는 904년에 建元했지만, 八關會는 그가 稱王하기 전 新羅 孝恭王 3년 899년 11월에 처음으로 개최했다. 어쩌면 隣國이 항복하고 九韓이 來貢하고 王祚가 永安할 것이라는 황룡사 구충탑의 건립과 이에 관련된 八關會의 設行 의지와도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궁예왕과 高麗 태조가 八關會를 국가적 의식으로 정립시킨 것은 중국의 禮樂思想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民族禮樂의 부흥을 의미한다. 궁예왕과 高麗 태조는 한국은 중국과 모든 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가 없고, 독자적인 禮樂을 향유해야 한다는 주체사상을 지녔던 지도자들이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을 흡모해왔다. 그러나 지역과 風土가 다  
르고 人性이 같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民族禮樂을 부흥 또는 성립시켜야  
한다. 唐風의 文物禮樂을 극복하는 뜻에서 八關會를 개최하고 이를 영  
원토록 존속해야 한다.

太祖 王建은 아마도 이와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는 八關會를 民族禮樂의 정수  
요 종합으로 인식했다. 중국의 禮樂과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太祖의 宣言  
은 우리들의 영원한 지표이다. 이제 중국 대신 그 자리에 『西歐』가 들어와 있지만, 우  
리들에게 外國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과거 우리는 중국의 禮樂을 수입하여 문화의 선

都……光化元年戊午春二月 莽松岳城……冬十一月始作八關會

29)增補文獻備考(弘文館纂輯 隆熙二年 1908)卷一百八 樂考 十九에 訓民正音이 편차되어 있다.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진화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東洋文化와 이를 바탕한 民族文化 창달을 위해서도 太祖의 民族禮樂認識은 새롭게 평가되어 부흥되어야 한다.

### 4. 八關會의 傳承과 變貌

八關會가 우리 역사기록에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真興王 33年 西紀 572년이다. 新羅가 북진정책을 쓰면서 많은 인명의 희생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영혼을 달래는 제사로서 등장했다. 真興王이 개최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八關會가 아닌 『八關筵會』이다. 이 八關筵會는 寺刹에서 거행되었다.<sup>30)</sup> 이는 민족 고유의 의식이 불교와 습합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八關會는 태조가 정의한 것처럼 『天靈』과 『五嶽』『名山』『大川』『龍神』을 제사하는 『民族宗教』였다. 八關會가 당시의 外來宗教였던 佛教와 접맥된 것이 다행인지 불운인지는 단정키 어렵다. 진홍왕이 불교에 열중했던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八關會는 外來 禮樂思想과는 충돌되는 내용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佛教는 이를 수용하려고 했다. 불교는 한국의 토착신앙(종교)을 배척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겠지만, 佛經에 있는 『八關齋戒』 등과 音이 같았기 때문에 佛教界에서 이를 흡수통합한 듯하다. 한민족의 고유한 가요였던 『兜率歌』가 佛教의 兜率天과 동일시 되어 불교가요로 오인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八關會는 『五嶽·名山·大川·龍神』을 모셨던 民族宗教로서 불교의 팔관재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는 『燃燈會』를 별도로 거행하게 했다. 弓裔王과 더불어 세력을 다투었던 후백제의 甄萱(?-936)이 八關會를 열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 百濟는 夫餘系의 국가이다. 적어도 王家의 경우는 그렇다. 그러므로 百濟의 국가적 공식 樂舞는 夫餘 高句麗로 계승된 夫餘계 樂舞일 가능성성이 크다. 百濟를 繼承했다고 표방한 甄萱王이 민족고유의 樂舞에 무관심일 수는 없었을 것인데, 기록이 없는 점은 이상하다. 八關會는 東盟·儻天 등의 계승이며 『새붉·한붉』의 音借이며 『금신앙』『螺신양』을 표현한 『불금회』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단언기는 어렵지만, 『八關』이 한민족 古語의 한자식 표기인 점은 확실하다.

太祖가 民族宗教의 일환인 八關會를 당시 외래종교였던 불교와 대등하게 실행하여 이를 격상시킨 사실은 民族禮樂에게도 영광이었다. 八關會는 新羅의 『仙風』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高麗朝는 新羅樂을 전폭적으로 수용 또는 계승한 것 같지는 않다.

30) 金富軾: 三國史記 新羅本紀 真興王 三十三年(572), 春正月改元鴻濟……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 七日罷。

왜냐하면 亡國의 樂舞라는 인식이 高麗의 지배층에게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新羅가 亡國 加倻의 樂舞를 수용할 당시에 보였던 『亡國之音』의 인식과 同軌이다.<sup>31)</sup> 자고로 유능한 통치자는 백성의 정서를 장악하는데 가장 좋은 공구가 樂舞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高麗 초기 景宗(955-981)처럼 聲色에 탐닉할 경우, 그 다음에 계승하는 집권자는 樂舞를 폄시할 수가 왕왕 있다.<sup>32)</sup> 景宗의 뒤를 이은 成宗(960-997)은 八關會에 수반된 百戲歌舞를 『雜技』로 규정했다. 前王인 景宗이 聲色에 탐닉한 것과 관계가 있을 법하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樂舞는 藥이 될 수도 있고 毒이 되기도 한다. 加耶의 嘉悉王(연대미상)과 新羅의 진홍왕(534-576)이 그 예가 되겠는데, 가실왕에게는 독약이 되었고 眞興王에게는 보약이 되었다. 八關會의 宗教的인 부문은 佛教에 밀려 시간이 흘러갈 수록 퇴색되거나 변질되어 갔다.

眞興王이 十月 二十日에 개최한 八關筵會는 夫餘의 『迎鼓』나 高句麗의 『東盟』 漢의 『舞天』 三韓의 『歌舞』 등으로 표현된 한민족 정통의 祭天 및 이에 따른 百戲歌舞 등과는 거리가 있다. 高麗朝의 八關會와도 성격이 달랐던 것 같다. 삼국사기 전편에 수록된 八關會 기사는 두번인데, 모두가 眞興王과 관계되어 있다. 戰死한 士卒들을 위하여 外寺에서 칠일간이나 八關筵會를 열었다고 했다. 八關會는 의식이 끝난 후 百戲歌舞를 대체로 공연했으며, 그 성격은 『吉禮』에 속하는 祝典이었다. 祭天 祭地 祭五嶽 祭川 祭龍神등의 경건한 의식이 끝난 후 朝野上下가 王과 더불어 즐기는 祝典이지 전쟁에 죽은 병사의 명복을 비는 그런 의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홍왕이 개설한 八關筵會는 불교의 八關齋會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다. 眞興王이 개설한 八關筵會가 佛教에 경사되었다는 증거는 삼국사기 다음의 기록에도 방증된다. 八關會가 吉禮인 것은 高麗朝에서 國忌가 있으면 八關會를 연기하거나 百戲歌舞를 생략한 데서도 확인된다. 八關會日에 國忌가 있으면 朝野가 크게 낭패를 했다. 高麗朝의 八關會는 夫餘系의 祭天儀式이 근간인데 반해 新羅의 八關會는 佛教의 영향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삼국사기 중에서 高句麗나 百濟쪽 사료에는 없고 新羅本紀 가운데 유일하게 眞興王條에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흥미롭다.

眞興王 12년 辛未에 ……居柒夫 등이 승세를 타서 족령 밖과 高峴 안쪽의 十郡을 취했다. 이 무렵 惠亮法師가 그 무리를 이끌고 길에 나 왔

31) 金富軾: 三國史記 樂 新羅樂 加倻琴, 諫臣獻議 加倻亡國之音 不足取也 王曰 加倻王淫亂自滅 樂何罪……國之理亂 不由音調 遂行之 以爲大樂

32) 高麗史: 世家 卷第二 景宗, 六年……末年厭倦萬機 日事誤樂 沈溺聲色 且好圍碁 呢近小人 疎遠君子 由是政教衰替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다. 居柒夫는 말에서 내려 軍禮로 읍을 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문란하여 멸망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원컨대 그대의 나라에 가고 싶다. 이에 거칠부는 함께 귀국해서 왕에게 보였다. 왕은 그를 僧統으로 삼았다. 百座講會와 八關之法이 이에서 비롯되었다.<sup>33)</sup>

高句麗는 멸망할 날이 얼마 없기 때문에 新羅에 귀의한 惠亮法師(연대미상)의 권고로 『百座講會』와 『八關之法』이 설치되고 시행되었다. 惠亮法師가 발의한 『八關之法』은 八關會와는 관계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가 高句麗의 승려인 만큼 夫餘系 禮樂적 경향이 강한 八關會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八關之法』에 혹시 八關會의 의식이 가미되었을 법도 하지만 단정키 어렵다. 高句麗 승려의 建議에 의해 八關之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眞興王은 加倻의 악사 于勒을 받아들이고, 加倻 통합의 상징으로 加倻樂을 新羅의 『大樂』으로 삼았고, 高句麗의 승려 惠亮法師를 받아들여 『僧統』으로 임명했다. 이는 加倻의 『樂』과 高句麗의 『佛教』를 수용한 것으로 眞興王의 탁월한 통치수완의 유감없는 발휘이다. 新羅의 三韓一家의 문화적 영토적 기반은 진홍왕에 의해 탄탄하게 닦아졌다. 진홍왕의 樂舞政策과 宗敎政策은 그의 禮樂인식에서 우러난 것이다. 古代와 中世의 가장 긴요한 통치이념은 禮樂思想이다. 이를 뒷받침하지 않은 지도자는 소위 철학이 없는 정치가로서 그 수명이 아주 짧았음은 역사가 말해준다. 첨가할 것은 이 당시의 禮의 범주에는 불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三山五嶽 名山大川을 비롯한 民族宗教는 첫머리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이다.<sup>34)</sup> 삼국사기 禮條에 물론 八關會는 없다. 新羅의 『禮』는 얼마간 엿볼 수 있지만, 高句麗 百濟의 것은 전혀 알 도리가 없다. 물론 『東盟』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다. 三國遺事에는 八關會가 직접적으로 佛教의 한 의식으로 등장한다. 一然이 三國史記에 불만을 가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佛教와 高僧大德들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의식은 철저하게 禮樂思想에 근거했다. 雷川도 삼국시대 신라의 八關會를 불교 쪽과 가까운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삼국유사에는 黃龍寺 九層塔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33)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四十四 列傳 第四 居柒夫, 眞興王二十年……居柒夫等乘勝取竹嶺以外 高峴以內十郡 至是惠亮法師 領其徒出路上 居柒夫下馬 以軍禮揖拜……今我國政亂 滅亡無日 願致之貴域 於是居柒夫同載以歸 見之於王 王以爲僧統 始置百座講會 及八關之法

34) 金富軸: 三國史記志, 첫머리에 祭祀와 樂이 실려있다. 이것은 三國時代의 禮志와 樂志인데, 너무나 간략하여 삼국시대의 예악을 파악하는데 꽉이나 아쉽다. 여기에서 불교는 배제되어 있고 列傳에서도 승려들은 대체로 빠져 있다.

神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호법룡은 나의 長子인데 梵王의 명으로 와서 절을 보호하고 있다. 본국에 돌아가서 사찰경내에 九層塔을 이룩하면 주변국가들이 항복하고 九韓이 조공을 바치며 영원히 안정될 것이다. 탑을 세운 후 八關會를 베풀고 죄인을 사면하면 외적이 해치지 못 한다.』라고 했다.<sup>35)</sup>

황룡사는 新羅의 국찰이다. 왕궁과 연접해 있는 新羅 佛教의 본산이었다. 경내에 있었던 구층탑은 新羅의 국보이기도 했다. 황룡사의 護法龍을 위해 탑을 건립하고 탑이 완성된 후에 八關會를 개최하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주변 나라들이 투항하고 九韓이 조공을 바치며 방국이 영원히 편안하다는 護國思想과 연계되었다. 高麗 太祖가 八關會의 성격을 말하면서 『龍神』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황룡사의 호법룡은 神의 長子라고 했다. 『事龍神』을 꼭 불교와 관련지을 수는 없지만, 황룡사 구층탑 조에 나오는 용신은 불교적이다. 그러나 이 구층탑에는 주변 국가가 항복해오고 九韓이 조공을 바친다는 민족적 야심이 잠재되어 있다. 單線的인 종교 영역을 벗어나 新羅인들이 품었던 三韓一家의 雄志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八關會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깃들여 있다. 一然은 八關會를 불교의식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그가 八關會의 본질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러나 八關會를 불교적으로 변용시키고 또는 불교의 한 의식으로 인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하튼 八關會는 護國思想과 三韓을 통합하여 그 宗主國이 되고자 했던 新羅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新羅의 八關會는 民族宗教적 성격보다는 불교적인 면이 우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八關會는 반드시 뒤풀이로서 百戲歌舞가 공연되어 한바탕 상하가 어울리는 신바람나는 祝典이 뒤따르는데, 新羅의 경우는 이른바 觀樂의 부문이 없다. 八關會를 한민족의 禮樂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일 新羅의 예처럼 불교의식으로 변질되었다면, 그것은 民族禮樂일 수는 없다. 八關會를 『禮』로 인식한 사례도 있다. 靖宗(1018-1046)元年에 宋商과 東西藩 耽羅國의 사신들에게 자리를 주어 『觀禮』케 했다는 기록이 그 증좌이다.<sup>36)</sup> 『賜座觀禮』의 『禮』는 禮樂의 『禮』이다. 八關會의 의식을 民族의 禮로 인정했다면,

35)一然:三國遺史 卷第三 皇龍寺 九層塔, 神曰 皇龍寺 護法龍 是吾長子受梵王之命 來護是寺 歸本國 成九層塔於寺中 隣國降伏 九韓來貢 王祚永安矣 建塔之後 設八關會赦罪人 則外賊不能爲害.

36)世家 卷第六 靖宗 元年……宋商東西藩耽羅國 亦獻方物 賜座觀禮. 前註 19)참고.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그 엄숙한 의식이 끝난 후 연희되었던 百戲歌舞는 民族樂舞가 주류였을 것이다. 이때 연희되었던 악무가 반드시 민족 고유의 악무만은 아니었을 터이지만, 주종은 檀君時代로부터 존재하여 계승되었던 民族樂舞였을 것이다.

八關會의 樂舞는 民族樂舞를 중추로 하고 外來樂舞를 부수로 했다. 八關會는 高麗朝에 중요한 『禮』이었으며 『樂』이었다. 그러므로 高麗史에도 禮志에 별도의 장을 만들어 그 의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상술할 정도였다. 八關會는 전래된 민족 전통의식의 대용합이었으며 民族樂舞의 대종합이기도 했다. 이같은 民族禮樂의 총화인 八關會를 弓裔王이 처음으로 개최한 이유와 高麗太祖가 이를 계승한 까닭도 민족과 民族禮樂의 종합과 통합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高麗朝의 八關會는 前主(弓裔)의 제도를 따르라는 주청에 의해 太祖가 聽從하는 형식으로 계승했다.<sup>37)</sup> 궁예왕은 新羅왕족의 서출로 알려져 있고 한때는 승려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중부권을 장악하여 왕이 된 그가 개최한 八關會이니, 중부권 백성의 정서와 그의 조국 新羅의 禮樂과 불교적인 색채가 종합된 의식이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高句麗를 계승한다는 중부권 민중의 정서를 편승한 그이니, 八關會의 중추는 夫餘系의 禮樂일 가능성 또한 부인키 어렵다. 高麗史의 편찬자들이 八關會를 民族禮樂으로 인정하고 禮志에 편차한 것은 정당한 발상이다. 중국의 禮樂思想으로 八關會를 보면 祭天 祭地의 의식이 있었던 만큼 이를 淫祠 또는 越禮로 인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高麗朝는 中國의 禮樂思想에 몰두하거나 구애되지 않고 독자의 民族禮樂을 정립하여 治國의 근본으로 삼은 자주적인 체제였다. 태조가 八關會를 영세불변의 국가적 의식으로 못박은 중요한 까닭은 高麗朝 체제의 영원불멸을 『神明』에게 기도하고 아울러 『神祇』를 위함이었다. 만약 팔관회 날짜에 국기가 있으면 國祚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고, 그러므로 國忌가 없도록 하라고 분부했던 것이다. 과연 三韓統合 이래로 國忌는 거의 없었던 편이었다.<sup>38)</sup> 『三韓一家』가 新羅의 꿈이었다면, 『三韓統合』은 高麗의 念願이었고 또 그것을 달성한 체제였다. 太祖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적을 심복시키는 온후한 지략가였다. 그는 그 나름의 국가통합의 禮樂思想을 가졌고, 그 구체적 실체중의 하나가 八關會였다. 민족의 정통 종교의식의 일환인 『祭天』과 『神祇』와 『天地神明』을 모시는 祝典 八關會를 개최하여 엄숙한 의식이 끝난 다음에 民族樂舞와 外來樂舞를 성

37) 高麗史:志 第二十三 禮十一 仲冬八關會儀 太祖元年十一月 有司言前主每歲仲冬大設八關會 以祈福 乞遵其制 王從之

38) 高麗史:卷六十四 志 第十八 禮六 國恤,十一月甲午虞 己亥設八關會 王觀樂于毬庭……初禮官奏 仲冬乃王太后忌日 請於孟冬行八關會……文克謙曰 太祖始設八關會蓋爲神祇也 後世嗣王不可以他事進退之 惣太祖禱于神明曰 願世世仲冬無令有國忌 若不幸有忌 則疑國祚將艾也 故自統合以來 仲冬無國忌

대하게 연희함으로서 朝野上下의 민심을 화합시켰다. 그는 실로 中世의 지도자로서 『民族禮樂』을 통치에 절묘하게 활용한 제왕이었다. 朝鮮朝가 이념을 설정해놓고 백성을 거기에 맞추어 통합 시키려고 한 점과는 다르다. 高麗朝는 백성의 정서를 모아서 이를 바탕으로 통합했고, 八關會도 이같은 시각의 산물이었다.

高麗朝 성립 이후 최초의 八關會는 太祖 元年(918)十一月에 鐵原에서 처음 設行하고 왕이 직접 儀鳳樓에 나가서 관람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례화했다.<sup>39)</sup> 八關會는 佛教와는 共存이 가능하지만 儒教와는 병존키어려운 儀式이며 樂舞였다. 그 이유는 中原의 禮樂思想에 여러모로 충돌되는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八關會는 韓民族의 禮樂이다. 그러므로 中國의 禮와도 달랐고, 中原의 樂과도 별개였다. 천하를 그들의 禮樂으로 통일하려는 同文主義와 會通意識에 저촉되었다. 중국식 世界主義와 帝國主義는 나라마다 자기들의 禮樂을 갖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천하의 통합과 四海의 질서를 잡자면 중원의 禮樂을 모든 나라가 준수해야 한다고 중국과 일부 사대주의자들은 확신했다. 중국의 同文主義는 주변 약소국의 事大主義를 의미한다. 중국의 禮樂思想을 기준으로 八關會의 禮樂을 보면 『不經』이요 『煩擾』일 수 밖에 없다. 太祖의 後孫으로서 太祖의 至嚴한 訓要를 거역한 용감무쌍한 왕이 있었다. 수많은 高麗朝의 역대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太祖의 유지를 부정하면서 八關會를 폐지한 成宗이 그 사람이다. 그는 儒家思想에 심취했고, 그래서 高麗를 모든 분야에 걸쳐 중국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成宗』이다. 朝鮮朝의 『成宗』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당시의 중국화는 근대화를 뜻한다. 그러나 가장 민족적인 것을 버리고 중국화를 추진할 경우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위험이 따른다. 문화적 식민지로 변하는 것을 발전이요 진보요 근대화라고 단정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사유는 대단히 위험하다. 成宗은 景宗 六年(981)七月에 内禪으로 登極하고 그해(981)冬 십일월에,

八關會는 雜技로서 道德에 위배될 뿐아니라 아울러 번잡하고 소란스  
러운 행사이니 일체 폐지하라<sup>40)</sup>

라고 명령했다. 성종의 八關會 폐지 명령은 高麗社會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太祖의 遺訓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高麗 백성들의 정서를 억압한 것이다. 성종은 高麗朝

39)高麗史·卷二 世家 卷第一 太祖一，元年十一月始設八關會 御儀鳳樓觀之 歲以爲常

40)高麗史·世家 卷第三 成宗，景宗六年七月甲辰 受內禪即位……冬十一月丁酉追謚先考遂  
謁陵 是月王以八關會 雜技不經 且煩擾 悉罷之 幸法王寺行香……二年春正月辛  
未王祈穀于圓丘 配以太祖……六年……冬十月命停兩京八關會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의 고유문물과 제도 등을 중국식으로 많이 고쳤다. 高麗史를 편찬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儒家思想을 신봉하는 지식인들이었다. 八關會 폐지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터인데, 성종실록에서는 저항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朝鮮朝의 유자들은 거개가 八關會의 폐지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성종실록 사료의 취사선택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성종이 비평한 『不經』은 유가적 禮樂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고, 煩擾는 民族樂舞의 발랄하고 신바람나는 홍청거림에 대한 폄하이다. 그의 뇌리에는 근엄한 儒敎的 儀式과 전아한 雅樂과 같은 중국의 禮樂이 기준으로 되어 있었다. 중국의 禮樂은 근엄하고 전아하다는 인식자체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太祖의 말대로, 지역이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人性이 다른데 반드시 唐과 같아야 할 까닭이 없다. 태조가 우리 동방이 『唐風文物』을 오랫동안 앙모한 사실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한 것과는 너무나 상이하다. 할아버지와 달리 손자는 매우 사대적이다.

성종은 八關會를 폐지했지만, 그 같은 민심을 거역한 정책이 오래 지속될 리는 없었다. 高麗시대에 八關會를 정치시킨 왕이 또 있다. 원나라에 가서 萬卷堂을 열고 당시 동방의 석학들과 교류했던 濬陽王 忠宣(1275-1325)이 그 장본인이다. 그는 先代王인 成宗보다는 온건했다. 성종은 폐지토록 했지만 충선왕은 停止시켰다. 폐지와 정치는 사뭇 다르다. 忠宣王이 祖王의 유훈을 받들지 않고 八關會를 일시 정치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元風에 은연중 물들어 있었다는 것도 이유일 것이다. 太祖가 唐風이나라안에 풍미하는 것을 불만스러워해서 民族的인 八關會를 권장하고 常例化시켰지만, 後王인 成宗은 아마도 宋風을 흡모하여 八關會를 폐지했던 듯하고, 忠宣王은 元風에 호감을 가지고 八關會를 停止시킨 듯하다.<sup>41)</sup> 물론 八關會가 시대를 경과하면서 폐단이 노증되어 많은 국고의 손실과 갖가지 부정적이 면이 나타났을 법도하다. 그러나 지엽말단의 하자로 인해서 본질을 말살하는 것은 단견이라 하겠다. 八關會의 정치나 연기는 國忌가 있거나 月蝕등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정치하는 예는 있었다. 成宗과 忠宣王은 이같은 사정 때문이 아니라 八關會 자체에 대해서 또는 그 폐해에 관해서 꺼려하여 폐지 혹은 정치를 명령했다. 成宗은 중국식 제천인 圓丘에 太祖를 配하여 訓要를 어긴 불충을 보상한 듯하고, 아울러 그는 燃燈會까지도 폐지할 만큼 철저하게 儒家的統治를 했다. 忠宣王의 아들 忠肅王(1294-1339)도 八關會를 정치 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忠肅王은 즉위한 후 八關會를 復設하여 개최한 흔적이 보인다. 그가 八關會를 정

41) 高麗史: 卷三十三 世家 忠宣王一, …… 辛亥 元遣使來詔曰 繫爾東藩世守臣職 子承父爵……朕惟王璋 親惟聖祖之甥 懿乃宗姬之婿……十一月……甲子命停八關會……王下教曰 肇自祖王統合三韓 臣服述職者尚矣 遣我父王上國顧遇 豈異於前……三年……十一月……辛亥停八關會

지시킨 것은 公主의 상을 당해서였다. 공주의 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八關會를 열었다는 가정도 해봄직하다.<sup>42)</sup> 成宗을 거쳐 穀宗을 계승한 顯宗((991-1031)의 경우가 이를 뒷받침 한다. 成宗만해도 그렇다. 그가 비록 결연하게 八關會를 폐지했지만, 쉽게 흐지부지될 儀式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되지 않았나한다. 왜냐하면 成宗 6年(987)冬 십월에 兩京의 八關會를 정지하도록 다시 명령했기 때문이다. 成宗의 두번째의 八關會 정지 명령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의 재위 기간인 16년이 지나고 뒤를 이은 穀宗(980-1009)의 12년 재위기간 동안도 八關會는 실행되지 못했다. 成宗 穀宗의 재위 시기가 지나고 顯宗이 등극하자 사정은 급선회하여 八關會와 燃燈會가 부설되었다.<sup>43)</sup> 成宗은 한민족 고유의 종교적 의식과 百戲歌舞를 포괄한 八關會를 雜技로 치부하고『不經』으로 판정했을 뿐아니라, 佛教의 대대적 축전인 燃燈會조차도 부정했다. 그러고서 그는 이땅에 中原의 禮樂을 정착시키려고 했다. 그의 이같은 중국화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朝鮮朝의 지식인들에게 높히 평가되었다. 成宗은 中國禮樂의 핵심인 『圓丘』『籍田』『宗廟』『社稷』등에 팔관회나 연등회 대신 國教의 성격을 부여했다. 高麗史 禮志 첫머리에 이들 中國式 祭儀가 나오는 것은 이를 최고의 禮로 보았기 때문이다.<sup>44)</sup> 이같은 禮의 교체가 高麗社會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의 好不好에 관해서 필자는 용晦할 능력이 없다. 다만 이들중에서 『圓丘祭儀』는 祭天儀式이기 때문에 諸侯가 지낼 수 없는 제사이다. 高麗朝 이후 朝鮮朝에 들어와서 초기에 잠깐 지내다가 곧 스스로 폐지했고, 高宗皇帝 때에야 다시 지낼 수 있었음을 附記해 둔다. 高麗史의 『禮志』와 三國史記의 『祭祀(禮)』는 내용상 큰 차이가 있다. 高麗史가 『圓丘』를 머리로 삼은데 비해, 三國史記는 『三山五嶽』을 冒頭에 배치했다.<sup>45)</sup> 八關會와 燃燈會를 폐지하고 中國 禮樂思想에 바탕을 둔 民族禮樂의 격하와 변개는 朝鮮朝에 와서 보다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八關會가 어째서 開京과 西京에서만 개최되고 新羅의 수도였던 東京이 빠졌는지도 궁금하고, 왜 開京에서는 11월에 열었으며 西京에서는 10월에 거행했는지도 이상하다.

42)高麗史:世家 卷第三十五 忠肅王二, ……六年……丁亥公主薨 賽于延慶宮……十一月  
丁亥 營主遣使來弔公主喪 乙未停八關會

43)高麗史:世家 卷第四 顯宗一, 元年春正月乙丑 廢上元道場 閏二月甲子復燃燈會……十一月……庚寅復設八關會 王御威鳳樓觀樂

44)高麗史:志 卷第十三 禮一, 高麗太祖 立國經始 規模宏遠 然因草創未遑議禮 至于成宗恢弘先業 祀圓丘 耕籍田 建宗廟 立社稷

45)金富軾:三國史記 第二十二 雜志 第一 祭祀조에 大祀·中祀·小祀로 분류하고 大祀에 三山 中祀에는 五嶽 小祀에는 霽岳을 위시해서 二十餘의 산악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신라의 신앙이 神宮에 모셔진 始祖와 더불어 三山五嶽이 핵심임을 말해준다. 前注 18) 참조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그리고 八關會 의식을 마친후 왕은 궁궐로 즉시 돌아가지 않고 『法王寺·歸法寺·興國寺·長慶寺』등의 사찰로 행차를 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현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威鳳樓·儀鳳樓·神鳳樓·靈鳳樓』등으로 가는데, 그 까닭 역시 알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 『本關·沙坂宮·帳殿·靈鳳門』으로 가는 경우 또한 未詳이다. 高麗史에 나타난 八關會 기록을 준거로 하여 본다면, 왕이 의식을 마친 후 法王寺로 행차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다. 왕이 곧바로 법왕사로 갈 경우 觀樂이 없는 걸로 되어있다. 법왕사는 高麗에 있어서 新羅의 황룡사에 해당되는 사찰이었다. 百戲歌舞는 왕이 의식이 끝난후 毡庭으로 행차할때 성대하게 거행되었다.<sup>46)</sup> 이따금 『00樓』를 거쳐서 法王寺나 기타 사찰로 갈 경우도 간혹 암무의 관람이 있었다. 법왕사나 흥국사 장경사 등의 사원으로 곧바로 거동할 때는 百戲歌舞가 대개 생략되는 것 같다. 八關會를 마치고 사찰로 가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절간으로 안가는 사례도 간혹 있었다. 八關會와 불교와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다. 연등회와의 관계 역시 간단하지가 않다. 高麗사 禮志에 기술된 『上元燃燈會儀』의 내용을 봐도 불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上元日에서 二月五日까지 영등할머니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는 민속이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불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하튼 연등회에서도 『百戲雜伎』와 教坊의 『奏樂』과 『舞隊』와 그리고 山臺樂人們의 연희가 殿庭과 毡庭에서 성대하게 공연되었다. 成宗이 연등회를 八關會와 마찬가지로 『煩擾不經』이라 하여 혁파할 정도였다.<sup>47)</sup> 시대가 훌러갈수록 八關會나 연등회가 그 본래의 『事天靈』과 『事佛』의主旨는 약화되고 今上들의 권위와 업적을 기리며 만수무강을 비는 쪽으로만 강화되어 갔고, 아울러 전반부의 엄숙한 의식보다 이에 따르는 『百戲歌舞』와 『百戲雜伎』의 오락적 유혹적 분위기만 고조되지 않았나 한다. 高麗 후대로 내려오면 八關會날의 분답과 소란과 흥청거림이 더욱 심해졌다. 연등회와 마찬가지로 八關會도 高麗王室의 永昌과 今上들의 만수무강을 비는 만세소리와 『山呼』 소리만 더욱 높아갔다. 八關會의 歌舞百戲는 사찰이 아닌 毡庭이나 『威鳳樓·儀鳳樓·神鳳樓·靈鳳樓』등의 궁궐에서 연희되었다. 이날 하루 이를간은 궁궐을 개방하여 일

46)高麗史:世家 卷第九 文宗三十三年……十一月……戊寅設八關會 御毡庭觀樂。世家卷第十二，睿宗一，戊申設八關會，幸毡庭觀樂。世家 卷第二十 明宗二，十四年……己亥設八關會 王觀樂于毡庭 翌日大會又觀樂于毡庭。志 卷第一八 禮六 凶禮 國恤，十一月甲午虞 己亥設八關會 王觀樂于毡庭 以太后祥日 除賀禮及舞蹈工人庭舞歌曲。

47)高麗史:志 卷第二十三 十一 上元燃燈會儀，……次百戲雜伎 以此入殿庭 連作訖出退 次教坊奏樂及舞隊 進退具如常儀 謁祖真儀便殿禮畢……顯宗二年閏二月 復燃燈會 國俗自王宮國都以及鄉邑 以正月望燃燈二夜 成宗以煩擾不經罷之。

부 민중들에게 歌舞百戲를 보이면서 君臣上下가 화합하는 『與民同樂』의 禮樂의 기본 정신을 실천코자 했다. 왕이 法王寺나 기타 사원으로 직행할 때에는 歌舞百戲가 연희 되지 않았고, 따라서 궁궐도 개방하지 않았던 것 같다.

八關會는 太祖 元年 十一月에 毡庭에서 弓裔王의 뒤를 이어 毡庭에서 거행되었다. 百戲歌舞와 『四山樂部』『龍鳳象馬車船』등은 新羅의 故事를 따랐다. 高麗가 명실상부하게 삼한통합을 성취하여 주변국가의 종주국으로 군림한다는 야심을 읽을 수 있다. 사실 東蕃·西蕃·黑水·耽羅·矮·宋商등이 공물을 바치면서 축하를 했다. 이 때의 高麗王은 황제로 군림하는 위엄을 보였다. 高麗는 新羅樂을 수용했다. 이는 봉건시대에 新羅國을 접수했다는 의미이다. 『四山樂部』의 연희는 新羅를 병합했다는 공개적 선언이었다. 八關會 날은 이를 관람하는 사람이 수도가 뒤집힐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尊卑貴賤·朝野上下의 만백성이 祭儀와 樂舞를 통하여 大和合을 이루는 축전이었다. 이는 진실로 中原의 禮樂이 아닌 韓民族의 禮樂이었다.<sup>48)</sup> 그러나 高麗朝의 이같은 고귀한 궁지도 忠烈王(1236-1308)대에 와서는 龍頭蛇尾로 변질되었다. 元帝國의 駙馬國으로 전락한 高麗의 위축된 양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태조가 八關會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이유는 三韓統合의 雄志와 그 성취의 謳歌와 三韓 백성의 화합 및 한민족의 잠재적 넘원이었던 稱帝建元의 의지가 맞물린 民族禮樂의 수립에 있었다. 高麗朝 개국과 함께 건원한 『天授』의 建國理念은 충렬왕의 즉위와 더불어 베푼 八關會의 의식에서도 그 퇴색과 더불어 쇠미를 읽을 수 있다.

忠烈王 원년 11월 庚辰에 본궐에 행차하여 八關會를 열었는데, 金鼈  
山 액자에 써어있는 『聖壽萬年』의 네 글자를 『慶曆千秋』로, 한 사람이  
경사스러우면 八表가 來庭하며 天下가 태평하다. 등의 글자를 모두 고  
치고 『萬歲』라고 부르던 것을 『千歲』라고 부르게 했으며 肇路에 황토를  
까는 것을 금했다.<sup>49)</sup>

『聖壽萬年·八表來庭·天下太平·呼萬歲·黃土』등은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용어들이고

48)高麗史:志 卷第二十三 禮十一 仲冬八關會議, 太祖元年十一月……仲冬大設八關會以祈福……遂於毡庭置輪燈一座 列香燈於四旁 又結二綵棚 各高五丈餘 呈百戲歌舞於前 其四仙樂部 龍鳳象馬車船 皆新羅故事 百官袍笏行禮 觀者傾都 王御威鳳樓觀之 歲以為常

49)高麗史:志 第二十三 禮十一 仲冬八關會議, 忠烈王元年十一月庚辰 幸本闕 設八關會 改金鼈山額 聖壽萬年四字 為慶曆千秋 其一人有慶 八表來庭 天下太平等字 皆改之 呼萬歲為呼千歲 肇路禁鋪黃土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제후나 왕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다. 그런데 高麗王들은 이들 용어를 당당하게 사용했다. 朕·制·詔·表·山呼·太史·部·祖宗…… 등의 글자는 왕들이 쓰지 못하는 말이다. 국제관계에 禮樂思想이 적용될 때, 建元과 祭天 祭地를 못한다는 禁忌와 함께 소위 제후국에 가하는 제약의 구체적인 사안들이다. 그러나 高麗는 이같은 중국의 禮樂思想을 인정하지 않고 高麗王을 皇帝로 인식하는 자주성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그의 웅대한 자긍심은 八關會를 통하여 더욱 선양되었다. 八關會는 祭天 祭地의 의식이 포함되었고, 당시의 高麗王은 天子이면서 太祖의 顯身이며 태조는 『天授』의 왕이니 그의 후손은 자연히 天子이다. 八關會 때 百官과 百姓들이 萬歲를 불렀고 高麗는 天下의 中心이기 때문에 八表가 들어오고 高麗王의 慶事가 있으면 天下가 태평할 수 밖에 없다. 高麗왕은 天子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는 黃土를 깔았던 것이다. 한국사에 있어서 최고통치자에 대한 萬歲소리는 忠烈王 元年 西紀 1275년부터 한반도에서 잠적했다. 『祖·宗』의 칭호도 불릴 수 없었다. 元帝國은 중국의 禮樂思想을 도습하여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했다. 제후국에서 부마국으로 전락한 高麗가 民族禮樂을 향유할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초창기의 八關會는 大宋 黑水 應羅 日本 등의 여러나라가 예물을 바치고, 國初 功臣 金樂(?-927), 申崇謙(?-927)의 우상이 등장하던 웅흔한 儀式이었는데, 高麗말기에 오면 이같은 기상은 점점 없어지고 遊戲적인 면으로 치중되지 않았나한다.

50) 東京·西京·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八牧이 表를 올리고, 東蕃 西蕃 등이 方物을 바치던 거창한 의식도 퇴색해 갔다. 주변의 국제정세와 高麗 국력의 興替와도 관계가 있다. 봉건시대에 萬歲를 부를 수 없는 국가는 諸侯國에 불과하다. 朝鮮朝 太祖는 처음부터 『千歲』로 시작한 왕이다. 당시 明帝國이 그것을 용인치 않았다는 것도 원인 이겠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현실주의적 지도자였다. 한반도의 『山呼聲』은 충렬왕 이후 620여년간 잠복했다가 高宗의 황제즉위(1897)이후부터 되살아 났다. 八關會는 民族禮樂에 근거한 韓民族의 禮樂이다. 그러므로 八關會가 웅흔하고 장엄한 기풍을 상실하면, 민족의 주체성과 공지도 함께 하강하기 마련이다. 民族宗教의 위축과 民族樂舞의 무력화도 여기에 부수되었다. 백성의 화합을 치중하다보면 그 악무가 오락성으로 흘러 건전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元帝國의 駙馬로 격하된 高麗王이 주관하는 八關會가 옛날 자주국가 시절의 선대 왕들에 비해서 권위가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八關會 장은 유희장으로 변할 소지가 많았다. 유희장이 된 八關會 마당은 소란스럽고 무질서하여 자칫 난장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뒤따랐다. 그 실례로 忠肅王 卽位年の 設行된

50)高麗史:世家 卷第四 文宗三, 二十七年十一月申亥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翼日大會 大宋 黑水 應羅 日本 等諸國人 各獻禮物 名馬. 世家 第十四 睿宗三,十五年冬十月 …… 辛巳設八關會 觀雜戲 有國初功臣 金樂申崇謙偶像 王感歎賦詩

八關會와, 禱王(1364-1389) 12년에 거행된 八關會의 난맥상을 들 수 있다.

庚子에 八關會를 개최했는데, 王은 儀鳳樓에 거동하고 上王은 丁午混丘와 더불어 樓西에 있고, 公主는 王의 淑妃와 함께 樓東에서 樂을 관람했다. 다음날 大會에 權貴의 종복들이 廣庭에 들어와 서로 다투어 돌을 던져서 樓上에 까지 날아와 侍臣 紅鞞鉤가 혹 맞아서 떨어지기도 했다.<sup>51)</sup>

辛禴 十二年 十一月 丁卯에 八關會를 실행하고 禱가 기생과 궁녀를 대동하고 憲府의 北山에 올라 이를 관람했다. 이 會에 巡軍이 近侍와 더불어 길을 다투어 혼잡하여 近侍가 많이 창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sup>52)</sup>

八關會의 儀式과 歌舞百戲와 雜伎 四仙樂部등의 樂舞는 百姓 和合의 기능보다는 품위가 실추된 유희로 전락하여, 들판매질과 近侍가 창에 찔리는 불상사가 王이 보는 가운데 일어날 정도였다. 八關會의 이같은 혼란과 雜沓相은 高麗 下代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高麗체제의 주락 및 노쇠현상과 직결된 것이다. 八關會가 高麗朝와 운명을 같이 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원을 장악한 元朝에 의해 八關會의 격이 皇帝의 위상에서 諸侯의 위치로 내려온 사실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八關會 儀式의 核은 祭天 祭地인데, 元의 압력으로 혹시 이를 못한 것은 아닌지, 八關會의 악무가 鄉樂을 중심으로 했는데, 唐樂에 밀려 儒者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두가 미지수이다. 八關會는 한국사에 있어서 그 역사적 기능을 다한 것인지, 아니면 고려 태조와 역대 고려왕을 기리는 성격이 부수된 까닭으로 李太祖를 중심한 朝鮮朝의 儒家의 지식인들에 의해 퇴장당한 民族禮樂의 總和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여하튼 高麗朝의 국운과 함께 八關會는 그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태조에 의해 웅립된 高麗의 마지막 왕인 恭讓王(1345-1394)도 八關會는 개최했다. 八關會는 儒家의 知識人們이 특히 좋아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中國의 禮樂思想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들이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鄉樂(民族樂舞)을 위주로 연희되는 百戲歌舞 등이 엄청난 國庫의 손실을 초래한

51)高麗史:世家 卷第三十四 忠肅王, 庚子設八關會 王御儀鳳樓 上王與丁午混丘 在樓西 公主與王淑妃 在樓東觀樂 翌日大會 權貴僕從 入廣庭相投石 及於樓上 侍臣紅鞞鉤或有中落者。

52)高麗史:列傳 卷第四十九 辛禴四, 十二年 十一月 丁卯 設八關會 禱率妓及宮女 登憲府北山觀之 是會巡軍與近侍 爭路雜沓 近侍多爲槊所傷

다는 인식도 한몫을 했다. 夫餘系의 『迎鼓』에서 『東盟』을 이어 三韓系의 『四仙樂部』 등의 祝典을 통합한 三韓統合의 기념비적인 民族禮樂의 綜合儀式인 八關會는 恭讓王 3 年 1391年 11月 設行을 끝으로 한국사의 표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sup>53)</sup>

## 5. 朝鮮朝 創建과 八關會

八關會는 高麗朝五百餘年間 계속된 韓民族의 祝典이었다. 그것은 韓民族의 古代에 이은 中世의 宗教였고, 民族樂舞이기도 했다. 八關會는 高麗朝에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儀式이며 樂舞였다. 夫餘의 過鼓와 高句麗의 東盟 漢의 備天 三韓의 歌舞의 脈을 이은 祭儀였다. 八關會에서는 祭天과 祭地 및 今上에 대한 존경과 위엄을 山呼로 고조시켰다. 八關會의 主享은 天靈, 곧 하느님이고 配享은 始祖神인데, 이들의 保佑와 위세를 당시 帝王이 수렴하는 것으로 의식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 八關會는 開京과 西京에서 十一月과 十月에 각각 거행되었는데, 平壤에서 개최한 八關會는 高句麗의 東明聖王과도 관계가 있었다고 유추된다. 高麗朝는 평양에 東明祀를 보존하고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高句麗를 계승한 체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高麗가 東明祀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던 이유는 부여계인 北方同胞의 민심을 장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新羅의 수도였던 東京에서는 팔관회를 열지 않았다. 高麗는 新羅 유민들의 정서를 수렴하기 위해 팔관회의 악무중에서 新羅의 國樂의 성격이 있었던 『四仙樂部』를 채택하여 연회했다. 팔관회는 三韓統合을 성취한 太祖 王建의 야심적인 國家儀典이었다. 『功成制樂』이라는 고대 및 중세 지도자들의 禮樂認識이 작용했다. 太祖는 中原의 禮樂思想에 경도되지 않았던 매우 주체적인 帝王이었다. 그는 高麗에는 高麗禮樂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八關會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設行되었다. 그는 三韓百姓의 정서를 高麗體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八關會라는 祝典을 열었고, 아울러 의식이 끝난 후 百戲歌舞와 雜伎와 四仙樂部 등을 통합하고 이를 연회하여 高麗朝의 종합적인 民族樂舞를 한 것이다.

諸侯國은 원래 祭天을 못하게 되어있다. 圓丘에서의 祭天 역시 제후국은 하지 못한다. 그런데 高麗 왕궁에서 八關會와 圓丘祭儀를 통하여 祭天을 했다. 아마도 北京의 天壇에 준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다. 中原이 元帝國에 의해 통일된 후부터 八關會에서 萬歲소리는 사라졌고 혹시 祭天靈의 儀式도 금지되지 않았나 한다. 八關會에서 연

53)高麗史:世家 卷第四十六 恭讓王二, 三年十一月 ……丙申設八關會如法王寺.

희되고 연주된 百戲歌舞와 雜伎 四仙樂部들은 鄉樂과 唐樂과 雅樂 등 모든 樂舞가 총괄된 것이었다. 소위 高麗樂과 外來樂이 총동원된 은성하고 화려한 뒤풀이가 있었다. 八關會는 新羅 眞興王이 八關筵會라는 명칭으로 처음 열었고 八關會法도 시행했다. 또 皇龍寺 九層塔이 조성된 후 八關會를 設行했다는 三國遺事의 기록등은 高麗朝의 八關會와는 깊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八關會는 佛教의 성격이 주류를 이루는 행사였다. 高麗朝 八關會의 남상은 高句麗의 부흥을 표방하고 立國한 궁예왕이 899년 11월에 개최한 八關會이다. 高麗 태조는 이를 계승하고 高麗의 국가적 의식과 축전으로 승격시켜 후세왕에게 加減이 없도록 訓要로서 봇박았다. 高麗朝의 존속기간 동안 다소의 기복은 있었지만 太祖의 遺訓은 준수되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이니 八關會도 高麗朝의 쇠퇴와 더불어 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檀紀 3725년 서기 1392년 東洋曆 7월 17일에 창건된 朝鮮朝는 『以小事大』의 바퀴로 민족사를 전개시킨 체제였다. 국가의 통치이념 역시 儒家思想이었기 때문에 前朝의 佛家의 요소를 배제코자 했다. 朝鮮朝의 지배층은 八關會를 불교행사로 규정하고 일거에 폐지했다. 오백년간 지속된 민족의 축전을 폐기함에 있어서 추호의 아쉬움이나 심각한 토론 또한 전무했다.<sup>54)</sup> 우리는 혁명이란 미명을 표방하여 민족전통의 말살이나 집권의 합리화를 피하는 시도를 드물지 않게 보아왔다. 朝鮮朝는 민족사의 큰 진전을 이룩한 체제였지만, 우리민족의 가장 심각한 이상인 稱帝建元의 주체적 수레바퀴를 접어둔 사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의 역사가 칭제건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대륙과의 끊임없는 알력을 예상할 수 있다. 八關會는 칭제건원의 자주성과 상당히 연관된 高麗朝의 거국적 축전이었다. 朝鮮朝는 전통적 민족정서와 연결된 거국적 축전을 갖지 못했다. 朝鮮朝의 禮樂은 중국에 편향되었기 때문에 전래된 고유의 전통적 民族禮樂을 평하한 감이 많다. 그렇다고해서 朝鮮朝가 철저한 사대적 체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면에는 강인한 주체적 의식이 깃들여 있었다. 朝鮮朝는 前朝와 마찬가지로 國祖檀君을 숭앙하고 평양에서 정시에 致祭를 명령한 사실에서 그 주체의식을 읽을 수 있다.<sup>55)</sup> 世宗은 八關會에 대해서 朝鮮朝의 儒者들처럼 완강한 거부감을 갖지 않았던 듯하다. 세종은 鄉樂을 궁정한 지도자였음도 참조가 된다. 朝鮮朝 건국 초기 祀典을 정비할 때 단군을 국조로 인정하고, 중국의 黃帝나 堯舜을 거론치 않은 것은 朝鮮朝가 자주

54) 朝鮮王朝實錄: 太祖 卷一 元年 八月, 甲寅都堂請罷八關燃燈

55) 朝鮮王朝實錄: 太祖 卷一 元年 八月, 庚申……禮曹典書趙璞等上書曰 臣等伏覩歷代祀典……圓丘天子祭天之禮 請罷之……前朝君王 各以私願 因時而設 後世子孫因循不革 方今受命更始 豈可蹈襲前弊 以爲常法 請皆革去 朝鮮檀君 東方始受命之主 箕子始興教化之君 令平壤府以時致祭

## 高麗朝 八關會와 禮樂思想

적 민족국가임을 천명한 것이다. 세종은 高麗朝가 八關會를 오백년간 중단하지 않고 실행한 사실을 평가 했다.<sup>56)</sup>

八關會는 후대에 올수록 佛敎쪽으로 그 성격이 변모되었다. 八關會가 사찰에서 거행하거나 주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불교는 민족의 고유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수렴했다. 그러나 八關會가 민족고유의 축전적 성격을 상실하고 佛事로 변형되어 民族禮樂的 성격이 소멸되었을 경우 그 존재의의가 회박해질 것은 당연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특정 宗敎가 극성하여 사회의 제반분야를 종교영역속에 포괄하는 횡포를 부리면, 그 종교는 이미 파멸을 의미한다. 高麗末의 불교가 그 예이다. 燕山君(1476-1506)에게 金駟孫(1464-1498)이 올린 啓에서 우리는 教勢를 확장한 종교가 그 세력을 믿고 교만방자한 작태를 자행할 때 당하는 업보를 극명하게 접하게 된다. 이는 비단 과거의 일만 아니고 오늘과 내일의 일이기도 하다. 高麗朝 멸망의 원인중에 하나가 종교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현대사에 하나의 엄숙한 경고일 수도 있다. 불교가 종교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절반이 넘는 신도를 불모로 전국 방방곡곡에 사찰을 짓고 세속적인 영화와 쾌락에 탐닉한 14세기의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萬感에 젓게 한다.<sup>57)</sup> 八關會는 비록 잠적했지만, 전체 韓民族의 정감을 응집하여 大同團結을 이루하는 민족의 축전은 어떤 형태이던지 간에 부흥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西歐의 禮樂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표류하는 民族正氣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도 民族禮樂의 理念은 참신하고 진정한 의미의 진보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西歐로 향한『以小事大』는 이제 역사의 후면으로 접어두고『稱帝建元』의 主體의 바퀴로 민족사를 전개시켜야 한다. 八關會의 祭儀와 樂舞는 中國禮樂과는 거리가 있는 民族禮樂의 이념이 근간이었다는 사실은, 八關會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훗날 이미 얼마간 달라진 南北韓의 現代的『禮樂』을 종합하여 韓民族의 大統合을 상징하는 또 다른『八關會』의 設行을 기대하는 것도 무의미한 염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6) 朝鮮王朝實錄: 世宗 卷九十 二十二年 庚申八月, 庚辰 御勤政殿受朝 上曰 大抵立法非難行法爲難 既立其法則 雖有不得已之故 不可廢也 昔高麗之八關會 我朝之講武 雖遇早乾凶歉之歲 常行不廢

57)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卷十 元年 乙卯十一月, 辛卯受常參御經筵獻納 金駟孫啓曰……麗朝崇信佛教 僧徒半於吾民 塔廟遍於四境 糜費萬端 日事飯佛 名之曰八關會 當其時倭寇方張 大敵厭境 法筵不廢 士大夫從風而靡 以至婦女上寺經宿與僧徒混處 或有淫亂者 而終至於亡